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한·중 수출입 기업의 FTA 투자 규정
및 서비스 무역 협정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icient Utilization through FTA
Investment Regulations and Service Trade
Agreement of Import and Export Companies
in Korea and China

제주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서 휘

2021年 2月



한·중 수출입 기업의 FTA 투자 규정
및 서비스 무역 협정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icient utilization through FTA
Investment Regulations and Service Trade
Agreement of Import and Export Companies
in Korea and China




지도교수 박진우

서희

이 논문을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2월

서희의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최윤석	
위원	홍재성	
위원	박진우	

제주대학교 대학원

2020년 12월

국문초록

경제 세계화는 세계 발전의 필연적인 추세이며 지역경제 통합은 그 프로세스를 가속할 수 있으며 글로벌화의 필수 코스이다. 통합은 회원국 시장을 확대하고 자원의 활용도를 높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한다. 세계 각국은 이에 부응하여 기회를 모색하고 다른 나라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 인하, 무역 우대, 무역 지역 조성 등을 이용하여 양국 또는 다자 간 경제 무역 협력을 개시하고 무역 원가를 대폭 인하하였다. 2008년의 금융 위기로 국제 무역 환경이 어느 정도 악화되었다. 세계 각국은 각종 부정적인 영향에 대응하여 자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자유 무역 구역을 세우는 것이 몇몇 국가의 우선이 되었고, 점차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발전의 대국으로서 다른 나라와의 지역경제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14개 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이 중 12개 무역협정을 실시했다. 아시아, 유럽, 라틴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 등에 분포하고 있다. 그 중 한·중 FTA는 포괄 분야가 가장 광범위하여 무역 거래액 가장 많다.

중국과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의 두 주요 국가로서 1992년 수교 이래 양국 간의 경제 무역 왕래가 많아지고 경제 무역 관계가 매우 밀접해지고 있다. 양국 교역액이 크게 증가하며 투자액이 점차 증가하고 산업 협력의 폭과 깊이가 양국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한·중 자유무역구역이 순조롭게 조성되면 양국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양국 국민의 복지수준을 높여 세계경제에서 한·중 양국의 영향력을 키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2015년12월 한·중 FTA 체결 발효 후 2018년 3월에 한·중FTA 서비스 무역 후속 협정 제1차 협상 개최했다. 한·중 서비스 무역의 후속 협상은 한·중 양국의 서비스업과 투자 발전에 유리할 것이므로 본문은 미래의 한·중 양국의 수출입 기업이 한·중FTA 서비스 무역 협정과 양국의 투자 규정을 어떻게 활용하여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것인지를 연구할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본문 제1장은 서론이고 주로 연구의 배경, 한·중 FTA협정의 문제, 목적, 제시

하며 연구의 구성을 설명했다.

제2장은 우선 한·중 FTA의 발전 배경 및 과정을 소개한 다음에 서비스 무역 협정 후속 협상에 대해 서술했다. 그리고 한·중 무역 교역의 현황은 상품무역, 서비스 무역으로 소개하고 한·중 대외 무역 현황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FTA, FTA 투자 규정, 서비스 무역 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찾아내고 검토를 했다.

제3장은 서비스 무역 협정, 투자 규정으로 나뉘 투자한·중 FTA의 주요 내용을 분석했다. 그 다음은 한·중 투자 규정 및 현황을 소개했다. 마지막은 FTA가 한·중 양국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서술했다.

제4장은 한국과 중국 현재 각각 어떤 교역 환경에 있는지 소개하고 한·중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의 장애요인을 제시했다. 그리고 한·중 양국의 교역 환경을 고려하며 한·중 서비스 무역 및 투자의 장애요인에 대한 대응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한·중 수출입 기업들이 FTA 서비스 무역 협정 및 투자 규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서비스 무역, 투자 두 가지로 나뉘 도출했다.

제5장은 한·중FTA가 양국 무역 교역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수출입 기업들이 양국 무역거래와 투자가 확대하려면 한·중 FTA 규정을 활용하는 필요성을 총괄했다. 그리고 향후 한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경제 발전을 시키기 위해 FTA같은 역내 협력이 더 많아지고 더 많은 국가의 수출입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망을 살펴본다.

키워드: 서비스 무역, 한·중 FTA, 투자

- 목 차 -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연구의 구성	3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5
1. 한·중FTA	5
1) 한·중 양국 무역의 현황	5
2) 한·중 FTA의 체결 과정	7
3) 서비스 무역 협정 후속 협상	11
2. 한·중 FTA 교역 현황	13
1) 상품무역 현황	13
2) 서비스 무역 현황	21
3. 대외 무역 환경	24
1) 중·미 무역 분쟁	24
2) 한·일 무역 분쟁	27
3) 한·중 무역 분쟁	28
4) 일대일로	30
4. 선행연구	31
1) FTA에 관한 연구	31
2) FTA 투자규정에 관한 연구	36
3) 서비스 무역협정에 관한 연구	39
III. 한·중 FTA 투자 규정와 서비스 무역 협정	42
1. 주요 내용	42
1) 서비스 무역 협정	42
2) 투자 규정	46

2. 한·중 투자 규정 및 현황.....	49
1) 한·중 투자 규정.....	49
2) 한·중 투자 현황.....	54
3. FTA의 효과.....	58
1) FTA 발효 전후 한·중 교역.....	58
2) 상호보완 효과.....	59
 IV. 투자 규정 및 서비스 무역 협정 대응 방안.....	 60
1. 한·중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장애요인	60
1) 한·중 무역의 특징.....	60
2) 한·중 FTA의 문제점.....	62
2. 대응 대안	65
3. FTA 서비스 무역 협정 및 투자 규정 대응 방안.....	71
1) 서비스 무역 협정.....	72
2) 투자 규정.....	76
 V. 결론.....	 79
 참고문헌.....	 81
ABSTRACT.....	86

표 목차

<표2-1> 한·중 무역관계의 단계	7
<표2-2> 한·중 FTA협상의 과정	10
<표2-3> 한·중 서비스 무역 및 투자에 대해 후속 협상 과정	12
<표2-4> 한·중 FTA 서비스 무역 부문 개방 정도	13
<표2-5> 한·중 FTA 소비재에 대해 양허 수준 비교	16
<표2-6> 한·중 FTA 농수산물에 대해 양허 수준 비교	18
<표2-7> 2017년 중국자동차시장에 국가별 판매량 및 시장 점유율	20
<표2-8> 한·중 서비스 무역 현황	22
<표2-9> 한·중 관광 서비스 무역 현황	22
<표2-10> 한·중 운송 서비스 무역 현황	23
<표2-11> 한·중 제조 서비스 무역 현황	24
<표2-12> 미국의 무역 제재 현황	25
<표2-13> 중국 소비재 시장 내 한국의 점유율	29
<표2-14> FTA에 관한 선행연구	36
<표2-15> 양국 투자규정에 관한 선행연구	39
<표2-16> 서비스 무역에 관한 선행연구	41
<표3-1> 한국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	53
<표3-2> 한국의 대(對)중국 투자 현황	55
<표3-3> FTA발효 전후 양국무역액 및 성장률	59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과 중국은 인접한 지리적 위치와 유사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천연 자원, 노동력, 산업 구조 등에서 상호보완성이 강해 1992년 수교 이후 경제 및 무역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다¹⁾.

2019년 2,845.4억 달러의 무역규모를 기록한 중국은 그해 한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가 됐다²⁾. 그러나 두 나라의 경제 무역 관계에서도 문제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의 무역 적자가 심각하다. 분쟁이 끊이지 않고, 무역경쟁이 심화되는 등 무역장벽을 어떻게 줄이고 해결할 것인지는 한·중 양국의 고민이 된다.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2004년 한·중 양국은 FTA 추진에 합의하고 2012년 5월 협상을 개시했다. 14번의 협상 끝에 양국은 2015년 6월 1일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정식으로 서명했다³⁾. 한·중 FTA는 상품무역, 서비스 무역, 투자 그리고 규칙을 담고 있으며, 중국이 대외적으로 체결한 규격 중 가장 광범위하고 영향력이 큰 FTA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무역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중 FTA 체결로 양국 관계 큰 변화와 발전했다. 한·중 FTA 발효는 양국 간 무역장벽을 허물 수 있는 자유무역시대를 여는 것을 의미한다. 양국의 수출입 상품 중 90%가 넘는 품목이 무관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양국 간 서로 이익을 위한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⁴⁾.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이자 수입원, 수출 시장으로 특히 2019년 한·중 교역액은 1109.7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했다. 2019년 한국의 대(對)중국 투자는 1,634개 항목으로 중국이 실제 사용한 돈은 59억6,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8% 늘었다. 2015년 말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누

1) 李鵬飛, “中韓建交20周年的發展回顧與展望”, “중·한 수교 20주년 발전 회고와 전망”. 2013, PP.5~6.
2) 한국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3)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4) 장녕, “한중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연구”, “Study on china-korea Free Trade Agreement”.2016, PP.16~19

적 대 (對) 중국 투자 프로젝트 수는 57, 782개, 실제 투자 금액은 599억1,000만 달러다. 한국은 중국의 다섯 번째 외자 유치국이고 중국은 한국의 두 번째 투자 대상국이다. 2019년 중국의 대한 비 금융 직접투자는 4억9,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0% 증가했다⁵⁾.

또 2015년 한·중 양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2016년 공식 실행)공식 체결한 후 한·중 양국의 주요산업과 경쟁력 있는 산업의 빠른 발전을 이끌고 2016년 한·중 양국 교역액은 2,525억8,000만 달러다⁶⁾. 이 중 중국은 대(對)한국 수출은 937억 1,000만 달러, 한국에서 수입은 1,588억7천만 달러다. 중국은 대(對)한국 수출 주로 품목은 반도체, 컴퓨터, 강판, 태블릿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등, 한국에서 수입품은 태블릿 디스플레이, 반도체, 석유제품, 자동차부품 등 이다⁷⁾.

중국은 한국의 1위 교역 상대국이자 수입국과 수출 대상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4위 교역 상대국이며, 1위 수입처 국가와 4위의 수출 대상국이며 , 2018년 1~7 월 한·중 교역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 늘어난 1,522억6,000만 달러였다⁸⁾. 이 가운데 중국은 한국에 576억8000만 달러를 수출하고 자국 수입은 945억 8,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3%, 8.9% 증가했다. 2017년 7월 한·중 교역액 1283억8000만 달러, 대(對)중국 수출 759억1,000만 달러, 중국 수입 524억 7,000만 달러로 각각 21.3%, 23.1%, 193%를 차지했다. 양국 투자에도 깊은 관계가 있다⁹⁾. 2017년 한·중은 작년 동기 대비 31% 늘어난 2018개 종목에 투자했다. 중국은 실제 한국 돈으로 47억5,000만 달러를 써 작년 동기 대비 17.8% 성장했고 2016년 7월 말 2019년 12월까지 누적 대(對)중국 투자는 62,786건이고 실제 투자액은 704억3,000만 달러다, 한국은 중국의 두 번째 외자 유치국이고 중국은 한국의 두 번째 투자 대상국이며 2017년 중국의 한국 비금융적 직접투자는 78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54.3%로 증가하고 2019년 7월 말까지 한국에 대한 직접 투자 48억800만 달러를 투자를 한다¹⁰⁾.

최근 몇 년 사이 양국 교역액하고 투자액을 비교해 보면 양국 상호보완적일

5) 中國海關信息网, 중국세관정보사이트.2014.

6) 中國海關信息网, 중국세관정보사이트.2016.

7) 中國海關信息网, 중국세관정보사이트.2016.

8)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9)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2017년1월~2017년.12월 무역거래 통계 자료.

10) 중국해관, 2016~2017년 중국이 해외투자 통계 .

뿐만 아니라 경쟁적이기도 한다. 한·중 무역과 투자 시장은 한·중FTA를 발효 후에 활발해 지고 있어 보인다. 한·중FTA에 체결한 사항에 따라 조세 절감 등을 도입 경쟁의 도움으로 한·중 양국의 생산 요소의 이동은 시장과 더욱 맞고 생산 요소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중FTA 서비스 무역 후속 협상을 하고 있어서 미래의 양국의 수출입 기업이 투자나 서비스 무역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서비스 무역 및 투자에 대한 후속 협정의 의미는 더욱 광범위한 동 아시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한·중 양국이 수출입 기업과 동 아시아 국가들의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자유 무역을 추진하고 경제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한·중 FTA 서비스 무역 협정 및 투자 규정 후속 협상을 하고 있는 배경에서 양국의 투자 및 교역 시장은 활발해지고 있다. 이 연구의 의미는 양국 수출입 기업들이 한·중 FTA 서비스 무역 협정과 투자 규정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여 하고자 한다.

2. 연구의 구성

1) 연구내용

본 연구는 한·중 FTA협정 주요 내용 하고 서비스 무역 및 양국 투자규정을 제시하고 양국 서비스 무역 및 투자 현황을 분석하며 한·중 수출입 기업 어떻게 한·중FTA 서비스 무역 협정과 투자규정을 활용하는지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연구의 서론이다. 먼저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논술한다. 그리고 연구의 구성에 대해 작성을 했다.

제2장은 우선 한·중 FTA의 체결되는 과정을 기술하고 한·중FTA 서비스 무역 협정 후속 협상을 소개하였다, 그 다음에는 한·중 서비스 무역 및 투자 현황을 분석했다. 또한 한·중 양국 대외적 교역 환경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FTA, 마지막은 투자 규정, 서비스 무역에 관한 선행연구를 기술하였다.

제3장은 우선 한·중FTA 주요 내용 하고 한·중 투자 규정 및 현황을 분석하고 한·중 서비스 무역 거래 현황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FTA 체결 전후 양국 무

역액 비교하고 상호보완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제4장은 우선 한·중 서비스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애요인을 제시하고 나서 대안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은 한·중 수출입 기업 FTA 서비스 무역 협정 및 투자 규정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도출하고자 한다.

제5장은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방법으로 한·중 FTA 서비스 무역 협정 및 투자 규정을 설명하고 양국 상품무역, 서비스 무역, 투자 현황을 분석하며 양국 수출입 기업들이 FTA 서비스 무역 협정 및 투자 규정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양국의 무역교역 현황 소개를 통해 양국 간의 무역특징 및 문제점 특히 서비스 무역 하고 투자의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수출입 기업들이 FTA 서비스 무역 협정 및 투자 규정을 활용방안을 연구하였다.

3) 연구의 차이점

기존 연구들은 한·중 FTA의 체결한 무역협정에 관한 내용으로 특정 단일 협정에 대해 주로 연구했다. 현재 사회에서는 양국 간의 교역이 크게 발전하기 위해 서비스 교역 및 투자의 활성화는 꼭 필요한 것이다. 본 논문은 한·중 상품 교역현황, 한·중 서비스무역현황 그리고 한·중 FTA의 서비스 무역 및 투자협정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한·중 수출입 기업들이 FTA 서비스무역 협정 및 투자구정을 미래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연구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한·중 FTA

1) 한·중 양국 무역의 현황

양국 간 교역이 시작된 시점은 중국이 개혁개방에 나선 1979년으로, 당시 홍콩을 통한 소규모 상품 교역은 간접 무역으로 규모가 작고 무역 종류도 적었다. 1992년 한·중 정식 수교를 계기로 양국의 교역 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교역량이 급속도로 증가하였으며 무역 방식도 기존의 간접무역에서 직접무역으로 바뀌었다. 또한 한·중 수교 이후 무역은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양국은 여러 가지 협력 메커니즘을 설립하였다. 이러한 협력 메커니즘은 한·중 양국의 경제 발전을 어느 정도 가속하였다. 양국의 국제 정치 관계와 경제 발전 과정은 주로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표2-1참조)

첫째는 냉전 구도 단계이다. 20세기 50년대부터 수교이전까지 양국은 1970년대 초까지 50년대 초의 전쟁과 국가 이데올로기 차이 그리고 당시 세계 냉전 구도의 영향으로 서로 적대적인 상태였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중·미 수교와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완화되면서 양국 수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둘째는 무역 발전 시작 단계이다. 이 시기는 한·중 수교(1992년) 이후 중국의 WTO 가입 이전(2001년) 전후 10년이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양국은 공통규범 없이 일반규범이나 양자협정에 따라 무역과 투자활동을 벌여왔다. 한국은 1995년 WTO에 가입했지만 중국은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서 양국 간 공통된 적용기준이 없었다. 1992년 수교 당시 양국은 무역협정 및 투자보장협정(BIT)을 체결했지만 이는 일반 국가 간 관세 수준의 무역활동과 투자활동을 허용한다는 의미다. 이 기간의 교역 활동은 통상적인 국가 수준의 무역 협정이 체결되고 투자는 양자협정에 따라 이뤄진다. 양국 간 교역은 통상적인 관세율인 기본관세율에 따른 것으로 세이프가드(Safeguards), 반덤핑 등 무역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국 간 공감대가 부족한 상태다. 양국 간 투자는 수교 당시 체결한 한·중 투자보장협정(1997

년)에 따른 것이다. 이 역사적 단계를 양국 무역 발전의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셋째는 급속성장 단계이다. 이 시기는 2001년 중국의 WTO가입 이후 중국의 새로운 기준(2001~2011년 전후)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한·중 무역투자의 성장과 구조에 영향을 주었지만 제도와 정책 면에서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제도 면에서는 최혜국 대우의 관계, 즉 최혜국 대우, 즉 상호국세 가입국가로서 상대국에 대한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대우를 제공하면서 공동의 분쟁해결 절차와 기구의 관계로 자리를 잡았다. 이 기간 한국의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2001년 12.1%에서 2005~2018년 중국의 해외투자 비중도 같은 기간 12.6%에서 39.4%로 급증했다. 무역 활동에서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한국 기업은 중국 시장 진출은 본격 추진되면서 대(對)중 무역과 투자가 급증했다. 이 시기에는 대형 분쟁이 아닌 상호 수출입 및 투자 급증 반덤핑, 투자 분쟁 등이 증가하여 WTO를 통해 분쟁을 처리한다.

마지막은 한·중 FTA 단계이다. 이 시기는 중국 경제가 새로운 정상상태에 진입한 2012년 이후인 2017년이다. 이 시기 주요 협상은 한·중·일 투자보장협정(2012년 5월 발효), 한·중 FTA 협상 및 발효(2015.12),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추진(2013년)이다. 이때는 제도 기반을 닦는 한·중 경제협약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이 시기 주요 특징은 한·중 양국이 체결한 한·중 자유무역협정 이다. 한·중 FTA 2012년 발효 2015년 12월 관세 철폐 투자개방 확대 투자 확대 산업 및 지방경제 협력 시범사업 확대하고 비관세 벽전(통관기술무역 벽전위생검역) 분야 제도 개선 및 협력 확대 등에 합의했다. 한·중 FTA는 시장의 혜택을 누리고 상호 시장 개방과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비할 수 있다¹¹⁾.

11) 한중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한중 수교 25주년 평가와 시사점“, 2017, PP.23~25.

<표2-1> 한·중 무역관계의 단계¹²⁾

구분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제4단계
특징	냉전구도	무역 발전 시작	급속성장	FTA
시기	○	수교(1992) ~ 아시아경제위기(2001)	중국 WTO가입(2001) ~ 세계경제위기(2008)	중국 새 정상 상태 (2010년) ~ 지금
목적	○	한-대 중국 가공무역 중-대 한국 투자유치	한-대 중국가공무역+ 내수시장 개척 중-대한 투자유치, 시장 개방의 확대	한-대 중국가공무역+ 내수시장개척,GVC 중-대 한 GVC운용, 내수시장 개척
산업종류	○	노동력 집중, 제조업	다양화, 제조업	다양화, 제조업, 서비스업
지역	○	산둥성, 동북 지역, 연해 지역	광둥, 강수, 산둥, 북경	전국, 지역 체인점
방향	○	무역: 한→중 투자: 한→중	무역: 한→중 투자: 한→중 중→한(시작)	무역: 한↔중 투자: 한↔중
제도	○	비제도화, 쌍방 협상	WTO	FTA
국제경제환경	○	-내전이 종식 -글로벌 경제 고속성장(4%전제 고속성장)	-중국 WTO가입 후 경제 고속 성장(5%) G2시대 넘어갔다	-글로벌금융위기 충격 -진 세계의 경제 성장 느낌 -진 세계 무역 교역액 성장 느낌 -중국은 '일대일로' 추진

2)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 과정

(1) 동기

한·중 수교 30년 동안 한·중 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특히 2008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이후 상호 정치 신뢰와 전략적 소통이 강화되면서 분야별 협력은 새로운 단계로 발전했다. 양국의 경제무역 협력은 밀접하게 상호 보완하고 상호 존속하는 것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가 및 최대 수출시장이고 수입원하고 해외 투자대상국 지위를 유지하

12) 孫彤, “中韓FTA的貿易效應研究”, 2018, PP.14~15

고 있다. 한국은 중국의 넷 번째 무역 파트너국가이자 외국인 직접투자처이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FTA를 중요한 통상정책으로 삼았다. 따라서 중국은 한·중 FTA를 통해 양국 간 교역이 확대되고 동아시아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북아 3국(한·중·일)에서 갈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한·중 간 협력이 효과적이다. 한국도 중국과 맺은 FTA가 얻는 경제적 이익이다. 세계무역보호주의 분위기 속에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새로운 길을 찾아 FTA 체결을 추진했다¹³⁾.

(2) 협상 준비

2004년 11월 칠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習近平)과 한국 대통령 노무현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민간 공동연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2007년 산관학 공동연구가 시작됐다.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는 2007년 3월부터 2008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양측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와 논의를 진행했다. 2009년 산업 의견 제출을 시작했다. 양국은 같은 해 전문가 합동연구위원회를 발족하고 2010년 4월 공동보고서를 제출해 한·중 양국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태도를 설명했다. 양국 정상은 2010년 4월 30일 상하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대한 양측의 의사를 재확인했다. 정부는 2011년 7월부터 2012년 2월까지 한·중 FTA 추진 방향 간담회, 한·중 FTA 산업별 대책간담회, 한·중 FTA 협상 전략세미나 농어업단체장 간담회, 등 다양한 회의를 열어 한·중 FTA 타당성 방안을 논의했다. 전기의 토론과 연구가 오래 지속된 것은 농업 등 민감한 분야의 문제와 지적재산권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한 양국 간 의견 접근이 어려웠다.

(3) 협상 개시

2012년 5월2일 중국 상무부장 진덕명(陳德銘)이 한국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

13) 金民國, “中韓FTA對兩國貿易影響的實証研究”, 2018, PP.31~36.

부장 박태선이 베이징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했다. 한·중 FTA 협상은 단계별로 진행되며 협상 개시 후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분야별 협상 지침에 대해 협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세 인하 등을 위한 협상에 들어간다. 전체 품목을 일반 품목과 민감 품목으로 나누고 민감 품목을 초민감 품목과 일반 민감 품목으로 나눠 관세 인하 배제와 장기 감축 등을 협상한다. 표 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2012년 5월 시작된 이래 14차 협상이 진행 중이다. 협정의 주요 골격은 이미 마련됐고, 협정 내용을 충실히 하는 포괄적 가격 책정과 협상에 들어갔다.

<표2-2> 한·중FTA협상의 과정

시간	회담(장소)
2006.11.17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장관양측은 2007년부터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2007.3.22~23	한·중 FTA 산관학 공동 연구 제1차 회의(베이징)
2007.7.3.~4	한·중 FTA 산관학 공동 연구 제2차 회의(서울)
2007.10.23~25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 연구 제3차 회의(웨이하이)
2008.2.18~20	한·중 FTA 산관학 공동 연구 제4차 회의(제주)
2008.6.11~13	한·중 FTA 산관학 공동 연구 제5차 회의(베이징)
2010.2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수석대표 간 합의(베이징)
2010.5.23	한·중통상장관 회담때 맞춰 산관학 공동연구마무리 방안 (서울)
2010.5.28	양국 정상이 통상부 장관, 산관학 공동연구 완료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서울)
2010.9.28~29	한·중 FTA 정부사전협의 1차 회의(베이징)
2011.4.11	한·중 통상장관회담(베이징)
2012.2.24	한·중 FTA 공개공청회
2012.3.1~2	한·중 FTA 추진사전 실무협의회의(서울)
2012.3.22~23	한·중 FTA 추진사전 실무협의회의(베이징)가 열렸다.
2012.5.2	한·중 FTA협상 시작(베이징)
2012.5.14	제1차 협상(Kick-off meeting(베이징))
2012.7.3~5	제2차 협상(제주)
2012.8.22~24	제3차 협상(웨이하이)
2012.10.30.~11.1	제4차 협상(경주)
2013.4.26~28	제5차 협상(하얼빈)
2013.7.2~4	제6차 협상(부산)
2013.9.3~5	제7차 협상(WIPAN)
2013.11.18~22	제8차 협상(인천)
2014.1.6~10	제9차 협상(시행)방안
2014.3.17~21	제10차 협상(일산)
2014.4.15~16	회의 (베이징)
2014.5.26~30	제11차 협상(사천성매산)
2014.7.14~18	제12차 협상(대구)
2014.9.22~26	제13차 협상(베이징)
2014.11.4~5	제14차 협상(베이징)
2015.12.20	한·중 FTA 체결 공식 발효(서울)

출처: 한·중 FTA서비스 <http://www.fta.go.kr>

3) 서비스 무역 협정 후속 협상

중국은 최근 ‘중국형 서비스 중심 경제’로 급부상하고 있다¹⁴⁾. 중국의 최근 5년간 성장원동력 확대 효과는 고속철도, 인터넷, 전자상거래, 모바일 결제, 경제 공유 등 세계적인 트렌드를 선도하는 인터넷이 여러 업종에서 광범위하게 결합된 것이다. 현대서비스업 개혁을 통해 서비스 분야를 발전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확산되면서 사업 간 융합과 업그레이드가 촉진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세계 2위의 서비스 수입국으로 부상했다¹⁵⁾. 중국이 세계 서비스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6%로 1위인 미국의 10.6%와 별 차이가 없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중국의 서비스업 육성정책이 본격 가동된 2013년 이후 서비스 수입이 급증했다. 주로 정보, 컴퓨터, 소프트웨어, 임대, 과학기술, 교통, 우편, 공급서비스 등의 분야다¹⁶⁾. 한·중 FTA 서비스 무역 후속 협상은 협정서 발효(2015년 12월) 이후 2년 안에 시작된다. 그러나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국가 간 국제정치 문제 협상의 진전으로 일단 멈췄다. 표2-3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7년 10월 양국이 관계개선약정을 공식 발표한 이후 한·중 FTA서비스 및 투자의 후속협정이 다시 진행하고 2020년 7월까지 제8차례 회의를 했다¹⁷⁾.

14) 姚戰琪, “服務業真實開放度提升對我國服務業競爭力的影響”, “서비스 개방 정도가 중국 서비스업 경쟁력의 미치는 영향”, 2018, PP.29~30.

15) 學術論壇, “서비스업 개방 시각으로 보는 중국의 세계적인 가치 체인”, 2018, PP.10~11.

16) 중국상무부, <http://www.mofcom.gov.cn>.

17) 한·중FTA서비스홈페이지, www.fta.go.kr.

<표2-3> 한·중 서비스 무역 및 투자에 대해 후속 협정 과정

기간	주요 내용
2015.6.4	한·중 통상장관 FTA 회담서 협정문 공식 서명
2015.12.20	한·중 FTA 협정 공식 발표
2016.7~2017.9	국제정치문제(사드)로 진행 중단
2017.10.31	한·중 관계 개선 협의를 발표하다
2017.12.14	한·중 FTA 정상회담 개최 및 서비스 무역 후속 협상 개시
2018.1.5	한·중 FTA 서비스 무역 후속 협상 청문회
2018.1.29	한·중 FTA 서비스 무역 후속 전략 수립
2018.3.22~23	제1차 한·중 FTA 서비스 무역 후속 협상 개최
2018.7.11~13	제2차 한·중 FTA 서비스 무역 후속 협상 개최(베이징)
2019.1.15~17	제3차 한·중 FTA 서비스 무역 후속 협상 개최(부산)
2019.3.27~29	제4차 한·중 FTA 서비스 무역 후속 협상 개최(중국 상무부)
2019.7.17~19	제5차 한·중 FTA 서비스 무역 후속 협상 개최(서울)
2019.11.19~21	제6차 한·중 FTA 서비스 무역 후속 협상 개최(베이징)
2020.5.26~29	제7차 한·중 FTA 서비스 무역 후속 협상 개최(화상회의)
2020.7.20.~23	제8차 한·중 FTA 서비스 무역 후속 협상 개최(화상회의)

출처: www.fta.go.kr

한·중 FTA 서비스 무역의 업종의 개방 정도는 중국의 다른 FTA와 비슷하다. 그러나 주요 업종에 대한 개방도 낮은 편이다. 한·중 FTA는 WTO DDA+18)를 기준으로 서비스 시장을 개방한다. 표2-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은 다른 기존 FTA협정보다 법률, 건축, 엔지니어링, 유통, 엔터테인먼트, 등의 분야에서 더 높은 형태로 개방했다. 그러나 한·중 FTA(15.12.20)와 같은 시기에 발효된 중·호주 FTA는 연구개발(R&D), 병원, 공항 운영 서비스 등의 측면에서 한·중 FTA에 비해 개방적이다¹⁹⁾.

18) 도하 개발 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Doha)에서 열린 세계 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다자간 무역협상이 타결됐다. 이는 1986년 9월부터 1993년 12월까지 세계무역기구(WTO)의 우루과이라운드(UR, Uruguay Round) 육성을 계기로 새로운 세계 무역순서를 수립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농업과 비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의 무역자유화 목표이다. (출처: 바이두)

19) 한중FTA서비스홈페이지, <http://www.fta.go.kr> .

<표2-4> 한·중 FTA 서비스 부문 개방 정도

완전개방부문 ²⁰⁾ (6개)	컴퓨터 기기/문의, 데이터 생성, 가맹링크, 기타 유통, 컨설팅/기타 금융 서비스, 금융 정보 처리 서비스	
제한 및 미개척 부문 (149개)	제한적 개방부문	사업서비스, 오락, 금융서비스, 해상운송서비스 등
	미개척 부문	군사안보서비스, 연구개발(R&D) 항공운송, 지상서비스 등

출처: [http:// www.fta.go.kr](http://www.fta.go.kr)

한·중 FTA는 표2-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서비스업 완전 개방 부문은 총 6개 부문이다. 컴퓨터 기기/상담, 데이터 생성, 가맹체인, 기타유통, 컨설팅/기타금융 부대서비스, 금융정보처리 서비스. 규제와 개방을 위한 부처는 모두 149개로 대부분의 분야가 완전 개방되지 않았다²¹⁾. 개방 제한 부문은 사업서비스, 오락, 금융서비스, 해상운송서비스 등이 있는 분야다. 미개척 부문은 군사안전보장서비스, 연구개발(R&D), 항공운송, 지상서비스 업종이다. 한·중 FTA 서비스 분야의 개방 정도가 아직 작다.

2. 한·중 FTA의 교역 현황

협정문 중에 한·중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만 골라 협정 내용과 결과를 살핀다. 이 산업은 소비재, 농수산물, 전기, 자동차, 전자상거래, 서비스 무역 분야이다.

1) 상품무역 현황

20) 한·중 FTA 중국은 관세 양허표(부속문서 8-갑-1) Model(국경 간 공급) Mode2(해외 소비) Mode3(상업상재)에 표기된 산업에 제한이 없다. 자료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21) 한중FTA서비스홈페이지, [http:// www.fta.go.kr](http://www.fta.go.kr).

(1) 소비재 산업 현황

한국무역협회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무역액은 비록 그렇다고 한다. 2000년에는 30%대에 이르렀지만 2010년을 정점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5년 중국의 수입은 전년보다 18.4% 줄어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대(對)중국 수출에 제한 시켰다²²⁾. 한국과 중국의 교역은 가공무역과 중간재 거래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 현지 생산 비중이 높아졌고 중간재 수입량도 줄었다. 중국에서 수입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9.2%로 2000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해 중간재 수입과 대조적이다. 2005~2015년 중국의 중간재 수입시장에서는 한국의 점유율(2015년 기준, 15.8%)이 경쟁국에 비해 우세한 반면 소비재 수입시장에서는 점유율이 오히려 떨어졌고(2015년 기준 4.8%) 다른 경쟁국가에 비해 뒤처졌다²³⁾. 최근 중국 정부의 강력한 구조혁신 정책으로 그동안 한국과 중국이 유지해온 가공무역 관계는 큰 변화를 맞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은 여전히 가공무역과 중간재 수출 비중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이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²⁴⁾. 또 한·중 FTA 발효로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면서 소비재 품목 중 대(對)중국 수출 여건이 개선됐다. 특히 위생검역 등 소비재 품목에 대한 비관세 장벽이 낮아지면서 소비재 분야의 양국 중소기업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다²⁵⁾.

(2) 한·중 FTA 소비재 협상 결과

협정 발효 후 최장 20년 내에 전 품목에 대해 90% 이상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²⁶⁾. 표 2-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품목 수에서 전체 품목의 91%(7,428개)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 한국은 최장 20년 내에 전 품목의 92%(11,272개)를 폐

22)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

23) 한국무역협회, 2005~2015년 한국 중국에서 수출입 통계정리.

24) OH SUNYOUNG, “한국 서비스무역의 문제점 및 대책 연구”, 2019, PP.47~49.

25) 金璟璠, “中韓自由貿易協定的問題與前景研究” P.38, “한중FTA 문제점 및 전망 연구”, 2018, PP.31~33.

2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품목수는 2015년 한국 HS기준.

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수입액 기준으로 한국에 대해 85%(1,417억 달러)의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이 91%(736억 달러)를 수입하면 협정 발효 후 최장 20년 내에 철폐하게 된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 즉시 철폐되는 상품은 한국 전체 품목의 50%를 차지하며 수입액은 전체 수입액의 52%, 중국 전체 품목의 20%, 수입액의 44%를 차지한다. 중국은 관련 세금 기준으로 87억1,000만 달러의 관세를 즉시 철폐했고 한국은 80억4,000만 달러로 금액 차이가 크지 않다. 10년 안에 없어지는 품목은 한국 측 전체 품목 중 79%, 수입액은 77%이다. 중국은 전체 품목 중 71%, 수입액의 66%를 차지한다. 중국이 10년 간 관세 철폐 관세 금액은 기준 457억9,000만 달러이고 한국은 284억7,000만 달러다. 20년 안에 없어지는 품목은 남측 92%이고 수입액은 91%이다. 중국의 91%는 수입액의 85%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한·중 FTA를 통해 대(對)중 수출 458억 달러에 해당하는 기존 관세가 10년 만에 철폐돼 한국 기업의 대(對)중국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²⁷⁾.

2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 .

<표2-5>한·중FTA 소비재에 대해 양허 수준 비교

단위(% , 백만달러)

양허 유형	한국 양허				중국 양허			
	품목수 ²⁸⁾	비율	한(對)중 수입액	비율	품목수	비율	중(對)한 수입액	비율
즉시 취소	6,108	49.9	41,853	51.8	1,046	20.1	73,372	44
유관세	1,983	16.2	33,811	41.9	691	8.4	64,658	38.8
무관세	4,125	33.7	8,042	9.96	958	11.7	8,714	5.2
5년내 취소	1,433	11.7	3,098	3.8	1,679	20.5	5,830	3.5
10년내 취소	2,149	17.6	17,330	21.5	2,518	30.7	31,250	18.7
10년 내	9,690	79.2	62,281	77.1	5,846	71.3	110,453	66.2
15년 내	1,106	9.0	7,591	9.8	1,108	13.5	21,917	13.1
20년 내	476	3.9	3,406	4.2	474	5.8	9,375	5.6
20년 내	11,272	92.2	73,638	91.2	7,248	90.7	141,744	85.0
부분감축	87	0.7	2,276	2.8	129	1.6	10,014	6.0
현재관세 +TRQ	21	0.2	569	0.7	-	-	-	-
협정배제	16	0.1	77	0.1	-	-	-	-
양허제외	836	6.8	4,209	5.2	637	7.8	14,994	9.0
합계	12,232	100	80,768	100	8,194	100	166,752	100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 농산품 산업의 현황

2006년~2015년 10년 동안 한·중 무역총액에서 농산품의 비중은 2%로 유지해 왔고 이 비중은 전체적으로 작은 편이다.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 규모이고, 한국은 외향적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선진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저렴한 농업 생산 요인을 앞세워 값싼 농산물을 생산하는 반면 한국은 지리적 면적이 적고 농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그러나 한국인의 생활품속은 고추, 배추, 무류, 등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크다. 최근 중국의 농업도 개방되고 있어 중국의 농업발전은 대외세력의 지지가 어느 정도 요구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한·중 양국의 상호보완성은 협력의 필연적이다. 또 농업 분야에서의 협력은 중국 측

28) 품목수는 2015년 한국HS기준(한국은 10단위, 중국은 8 단위), 수입액은 2015기준.

이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을 갖고 있어 한국의 농업 생산자들이 대규모로 중국에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노동력을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이 부분의 노동력 가격은 한국 노동력의 가격보다 낮다. 이에 비해 한국은 농업생산에 있어서 과학기술 투입이 중국보다 월등히 우위에 있다. 이 때문에 농업 분야 요소의 차별화를 통해 한·중 간 농업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 농산물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품 무역을 그렇게 낮은 것은 매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다²⁹⁾.

(4) 한·중 FTA 농수산물 협상 결과

한국 농산물은 민감한 품목이라 엄격한 보호 조치로 수입을 낮춘다. 하지만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관세가 대부분 한국보다 높아 한국의 대중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다³⁰⁾. 한국은 농산물 품목 기준 30%, 수입액 기준 60%를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전체 수입액의 30%를 샘플 외에 FTA에 대한 보호가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분류했다. 쌀, 고추, 마늘, 양파, 육류, 쇠고기, 과일(사과, 오렌지, 배 등), 수산물(조기, 멸치, 등) 국내 주요 생산 농수산물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소 시장을 개방한다. 중국은 전체 농수산물의 93%(농산물의 91%, 수산물의 99%)에 대한 관세를 철폐해 한국 농수산물 시장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막은 상태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 가운데 21개 품목에 대해 관세가 개선됐다. 표 2-6에 표시된 대로 10년 내 총 702개 품목이 없어지고 중국 측 총 1,023개 품목이 중국보다 개방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20년 간 중국과 개방 정도가 비슷하다.

29) 陳曉娟, “中韓FTA對我國農產品貿易的影響研究”, 2014, PP.23~24.

30) 陳曉娟, “中韓FTA對我國農產品貿易的影響研究”, 2014, PP.32~33.

<표2-6>한·중FTA 농수산품에 대해 양허 수준 비교

단위(% , 백만달러)

양허유형	한국 양허				중국 양허			
	품목수 ³¹⁾	비율	한(對)중 수입액	비율	품목수	비율	중(對)한 수입액	비율
즉시취소	223	9.96	327	9.2	283	19.3	25	4.0
(유 관세)	121	5.4	80	2.3	162	11.1	9	1.4
(무관세)	102	4.6	246	6.9	121	8.3	16	2.6
5년내취소	303	13.5	16	0.5	79	5.4	5	0.8
10년내	176	7.9	278	7.9	661	45.1	85	13.7
(10년 내)	702	31.3	621	17.5	1,023	69.8	115	18.5
15년 내	428	19.1	103	2.9	232	15.8	74	11.9
20년	439	19.6	612	17.3	105	7.2	158	25.4
20A ³²⁾	2	0.1	28	0.8	-	-	-	-
20B ³³⁾	1	0.04	57	1.6	-	-	-	-
(20년 내)	1,572	70.2	1,420	40	1,360	92.8	347	55.8
부분감축	35	1.6	492	13.9	1	0.1	19	3.1
현재관세 +TRQ ³⁴⁾	21	0.9	569	16.0	-	-	-	-
협정배제	16	0.7	77	2.2	-	-	-	-
양허제외	596	26.6	989	27.9	104	7.1	256	41.1
총 합계	2,240	100	3,547	100	1,465	100	621	100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 한·중 전자산업의 현황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전자 산업은 동북아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다. 1990년대 중반에 이어 2000년대에는 한국의 전자업체들이 대부분 노동집약적으로 중국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이후 중국에서 발전한 전자산업은 이제 중국과 한국의 전자산업 격차를 크게 좁혔다. 한국산 전자제품과 중국산 전자제품의 경쟁

31) 품목수는 2015년 한국HS기준(한국은 10단위, 중국은 8 단위).

32) 20A : 10년 동안 기존 관세 유지, 이행 11년차부터 10단계에 걸쳐 균등 철폐되어 이행 20년차에 무세.

33) 20B : 12년 동안 기존 관세 유지, 이행 13년차부터 8단계에 걸쳐 균등 철폐되어 이행 20년차에 무세.

34) TRQ란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이다 : 지식백과.

력이 불과 몇 년 사이 빠르게 좁혀졌다. 한국이 전자분야 대(對)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5%로 가장 크다. 중국 수입 비중도 31.3%에 달했다³⁵⁾. 무역 구조는 일반 무역과 가공 무역이 혼합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다양한 무역 형태를 띠고 있다. 가공무역 비중이 높은 제품은 모터발전장치, 정지형, 전환기, 구리 전선, 등 중간재다. 가공무역이 불가능한 믹서, 믹서기, 가정용 전기 난방기, 오븐, 일러스트레이터, 등 최종 전자소비재 수출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자산업의 경쟁력은 한국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강하지만 중국 기업의 추격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특히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력은 높아지고 있다³⁶⁾.

(6) 한·중 FTA 전자상품 협상 결과

전자 분야에서 중국은 밥솥, 세탁기, 냉장고 등 중소형 생활가전과 의료기기 가전부품을 개방한다. 양국은 최근 중국의 LCD 패널 공급 능력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10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중국은 중간재고재질의 관세 철폐와 다양한 관세 철폐를 약속했다. 단기철폐 품목은 진공청소기(10년), 진공청소기 부품(10년), 전자레인지(10년), 드라이어(10년), 아연, 니켈(10년) 등이다. 예외 취소 항목은 면도기, 전기다리미, 커피포트, 난방기, 발열기(전기, 세탁기, 부착), 휴대전화기 등이다. 전력 분야는 전선, 중계기, 소비재(가전제품) 등 다양한 품목으로 중국에 대한 경쟁력, 무역구조, 관세 철폐 내용과 효과는 달라질 것이다. 대(對)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 대(對) 중 수입액은 5.4%로 대중 소득 비중이 더 크다³⁷⁾. 세부 업종마다 다르지만 상당수 품목이 전자 분야처럼 높은 분업 관계여서 한·중 FTA를 계기로 양국 교역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³⁸⁾.

(7) 한·중 자동차산업의 현황

자동차 산업이 한국 경제의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한국

35) 중국 상무부, <http://www.mofcom.gov.cn>.

36) 許會會, “中韓FTA建立對中韓電子產品貿易的影響研究”, 2016, PP.24~25.

37) 중국 상무부, <http://www.mofcom.gov.cn>.

38) 許會會, “中韓FTA建立對中韓電子產品貿易的影響研究”, 2016, P.25.

제조업 생산액의 13%, 수출의 12%를 차지하고 있어 수출 기여도가 높은 산업이다³⁹⁾. 한국의 자동차업체들은 1980년대 이후 수출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해외 판매 비중도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해외 생산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추세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⁴⁰⁾. 하지만 도요타, GM, 포드, 등 주요 해외 기업과의 해외 사업 비중을 보면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측 조사에 따르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미국 일본 자동차 업체들보다 낮다. 또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자동차산업의 혁신역량이 더욱 중요해졌다. 특히 자동차와 ICT 간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ICT 부품 비중이 기존 기계부품보다 빠르게 앞서는 등 자동차산업이 첨단기술을 접목한 집합체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은 꾸준히 해야 하지만 한국의 연구개발은 상대적으로 적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표2-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6년 대비 2017년대 선진국 간 연구개발 격차가 확대되고 중국의 빠른 추격도 커지게 되면서 한국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크게 떨어졌다. 한편 한국 자동차의 품질을 유지한 특징은 “가성비가 높은 전략” 일본차보다 가격이 더 싸다. 하지만 최근 중국 소비자의 소비가 늘면서 브랜드와 품질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⁴¹⁾.

〈표2-7〉2017년 중국자동차시장에 국가별 판매량 및 시장 점유율

단위(% , 만대)

순위	국가	2016년 점유율(%)	2017년 점유율(%)	2017년 판매량(만대)
1	중국	43.2	43.9	1,084.7
2	독일	18.5	19.6	484.0
3	일본	15.6	17	420.5
4	미국	12.2	12.3	304.0
5	한국	7.4	4.6	114.5
6	프랑스	2.6	1.8	45.6

출처: 한국무역협회

2017년 중국 자동차는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승용차 판매 1위이며⁴²⁾, 총 판매

39)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2020.9.

40) 李珍英, “中韓兩國汽車產業發展及對中韓FTA啓示”, 2013, P.41.

41) 李珍英, “中韓兩國汽車產業發展及對中韓FTA啓示”, 2013, PP.42~43.

42) 중국자동차시장에서 중국브랜드의 시장점유율:45.6%(10)→38.4(14)→41.3%(15)→43.2%(16)→

량은 1084만7,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3% 늘었다. 중국 토종 브랜드의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이다. 한국, 미국, 일본, 독일이 각각 485만대, 421만대, 304만대, 115만대이다.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7.4%에서 4.6%로 떨어져 다른 나라 브랜드보다 더 빨리 추락했다⁴³⁾. 선진국과 중국의 자동차업체들은 전략적 기술제휴와 기업합병을 통해 소비자가 요구하는 제품을 적극 생산하고 있다. 한국 자동차 업체들은 대부분 대규모 공급자 중심의 폐쇄적 생태계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직계열화가 이뤄져 변화가 쉽지 않다⁴⁴⁾.

한·중 양국은 모두 자동차 분야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관세 철폐 효과는 없다. 하지만 중국산 상용차의 한국 수입은 확대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 중국산 상용차의 한국 수입은 확대될 여지가 있다. 또 비관세 벽전 및 분업 협력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⁴⁵⁾.

2) 서비스 무역 현황

1998~2008년 빠른 속도로 성장했지만 2009~2014년 서비스 무역이 안정되면서 2014년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수출입 총액, 수출액, 수입액, 증세 속도까지 모두 감소하는 등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다⁴⁶⁾. 2015년~2017년은 한·중 서비스 무역이 하락하는 시기고 2015년부터 한·중 서비스 교역은 액수가 커졌지만 성률을 보면 전체 증가는 평균 -3%, 수출은 평균 3.1%, 수입은 평균 10.7% 증가했다. 서비스무역 총수지 증감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2015, 2016년 한·중 서비스 무역 역조도 2017년과 2018년 호조를 보였다. 그해 2억9000만 달러의 흑자⁴⁷⁾에 그쳐 급성장 때와 비교해 양국 간 교역 협력에는 적극적이었지만 하락세가 두드러졌다.(표2-8참조)

43.9%(17).

43) 중국 상무부, <http://www.mofcom.gov.cn>.

44) 張天行, “中韓FTA對中韓汽車產品貿易的影響及對策研究”, 2014, PP.43~46.

45) 文浩成, “中韓FTA 對中韓主要產業的影響及對策研究”, 2016, PP.29~30.

46) 한국은행, <http://www.bok.or.kr> 1998~2014년 기준.

47) 한국은행, <http://www.bok.or.kr> 2015~2018년 기준.

<표 2-8>한·중서비스무역 현황

(단위: 억 달러,%)

년	수출	증속	수입	증속	총액	증속	수지
2015	152.2	5.3	205.6	-7.9	357.0	2.8	-53.4
2016	154.8	1.7	206.2	0.3	361.0	1.1	-51.4
2017	158.5	2.4	155.6	-24.5	314.1	-13.0	2.9
2018	161.1	2.1	169.3	1.1	320.1	1.7	8.2

출처: 한국은행 <http://www.bok.or.kr>

(1) 관광서비스무역 현황

2015~2018년 한·중 관광무역 부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5년 관광산업 총액은 1171억 달러로 이 중 수출이 23억7000만 달러, 수입이 93억4000만 달러로 적자였다. 평균 4년 총 증속은 -3.3%, 수출평균증속은 4.3%였다⁴⁸⁾. 근 몇 년 동안 특히 중국은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시기에 전통적인 관광 산업이 이미 국내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중국 국내 고객들의 정신적인 추구가 더 높으며, 또한 비약적인 발전 과정에서도 중국은 더욱 인프라를 중시하고 있다. 관광지의 개발 유지 및 관광 주변 부대시설의 완비도 현재 중국은 국제 시장에서 한·중 양국이나 세계 전체보다 관광 수입국에서 관광 수출국으로 전환하기 시작하고 있다. 국내 관광지의 해외 고객의 유치와 중국인의 더 나은 삶의 질은 한·중 간 관광서비스 무역 부문에서 적자를 내고 적자를 지속하며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서비스 무역이 한창이던 시절과 비교하면 이 같은 변화가 눈에 띈다.(표2-9참조)

<표 2-9>한·중 관광서비스무역 현황

(단위: 억 달러,%)

년	수출	성장속도	수입	성장속도	총액	성장속도	차액
2015	23.7	11.0	93.4	-0.1	117.1	2.0	-69.7
2016	25.5	7.6	103.3	10.6	128.8	1.0	77.8
2017	21.1	-17.3	55.8	-85.1	76.9	-4	34.7
2018	18	-15.6	52.2	-4.3	67.4	-0.9	34.2

출처: 한국은행 <http://www.bok.or.kr>

48) 한국은행, <http://www.bok.or.kr>.

(2) 운송서비스무역 현황

2015~2018년 한·중 운수업 교역을 살펴보면 2015년 전체 수출 106억5700만 달러, 수출 36억4100만 달러, 수입 70억1600만 달러로 보인다. 4년 간 무역증가가 계속 감소하는 등 수지가 적자였고 수입액은 계속 줄어 수출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⁴⁹⁾. 운수 서비스 무역 업종은 중국 서비스 무역에서 줄곧 약한 상태에 처해 있다. 비록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이 운수 서비스 무역업을 크게 발전시켰지만 그 열세의 추세가 여전히 비교적 뚜렷하여 상황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표 2-10참조)

<표 2-10> 한·중 운송서비스무역 현황

(단위: 억 달러,%)

년	수출	성장률	수입	성장률	총액	성장률	차액
2015	36.41	2.0	70.16	-11.0	106.57	-7.0	-33.75
2016	37.40	2.7	56.00	-20.2	93.4	12.4	-18.6
2017	39.60	5.9	49.9	-11.9	89.5	-4.2	-10.3
2018	41.1	4.2	43.0	-10.8	84.1	-5.0	-1.9

출처: 한국은행 <http://www.bok.or.kr>

(3) 제조서비스 무역 현황

2015~2018년 한·중 제조서비스업 교역액을 살펴보면 2018년 제조서비스업 교역액은 68억3,000만 달러이고 수출은 69억4,000만 달러고 수입은 1억2,300만 달러였다⁵⁰⁾. 제조서비스업 수지가 어느 단계에서나 흑자를 이어갈 경우 제조서비스업은 중국의 전통산업이고 중국은 제조서비스업의 경쟁력이 매우 강하지만 다른 두 단계에 비해 중국의 성장률이 크게 떨어져 2018년에 14.2% 이르렀다⁵¹⁾. 중국은 한국보다 인건비가 싸고 효율성이 높아 총액이 계속 늘고 있다. 하지만 제조서비스업이 한·중 간 서비스 무역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업종들이 모두 하락세를 보이는 데 비해 전체 액수나 성장률이 줄줄이 하락하고 마이너스가 될 수밖

49) 한국은행, <http://www.bok.or.kr>, 2015~2018년 통계 정리.

50) 한국은행, <http://www.bok.or.kr>, 2015~2018년 통계 정리.

51) 한국은행, <http://www.bok.or.kr>, 2015~2018년 통계 정리.

에 없다. 제조서비스업이 위축된 상태이니 관심을 가질 것은 물론이고 이서비스 무역을 촉진해야 한다.(표2-11 참조)

<표2-11>한·중 제조서비스 무역 현황

(단위: 억 달러,%)

년	수출	증속	수입	증속	총액	증속	수지
2015	60.36	-1.5	2.78	144.1	63.14	1.3	57.58
2016	58.50	-3.1	1.90	-3.2	60.4	-4.3	56.60
2017	63.90	9.2	1.50	-21.1	65.4	8.3	62.40
2018	69.4	9.0	1.23	-14.2	68.3	7.7	67.27

출처: 한국은행 <http://www.bok.or.kr>

3. 대외 교역 환경

1) 중·미 무역 분쟁

자유무역협정을 제외한 한·중 양국 무역에 미치는 기타 요인도 있다. 그중 하나는 국가 간 국제정치와 경제 문제이다. 최근 가장 큰 예는 중국과 미국의 정치 관계가 한중 양국에 미치는 영향이다. 미국 보호무역주의와 중·미 간 무역 분쟁, 중국의 일대일 정책, 미중 간 경제규모 1, 2위 다툼은 한국과 중국 모두에게 정치경제적 영향을 미친다. 미·중 무역 분쟁의 시작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6년 대선 기간에 중국을 비판한 데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출범한 뒤인 2017년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2017년 8월 통상법 301조에 따른 지적재산권 침해 지시를 내렸다. 이후 11월 두 정상이 2차 회담을 갖고 중국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제안했지만 결국 미국은 2018년 양국 간 무역 분쟁이 시작하였다. 중·미 무역 분쟁은 2018년 1월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에 대한 보호를 시작으로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하는 통상법 232조, 국가안보를 빙자한 통상법 232조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침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무역법 301조의 발동, ZTE(中興)의 제재로 시작됐다. 이와 같은 이유로 미국 국방부는 28일 중국 기업

11곳이 중국군이 보유하고나 통제하는 실물 리스트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미국 측은 이들 중국 기업이 모두 중국 군부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리고 2020년 5월 15일 미국은 화웨이⁵²⁾에 대해 전 세계 반도체 구매와 화웨이 5G⁵³⁾ 장비의 다른 국가 진출을 제한하는 등 전면적인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의 영향으로 현재 전 세계 32개국에서 미국 측의 압력을 받아 사용하지 않고 화웨이가 동시에 한국 측도 5G이 영향을 받는다.

<표2-12> 미국의 무역 제재 현황

실행/발표일	2018.2.7	2018.3.23	2018.4.3
대상품목 (관세징수율)	태양광 버전(30%) 세탁기(50%)	철강(25%), 알루미늄 (10%)	지적재산권에 관 한 품목(25%)
규정	통상법 201조 (GAT19)	통상법232조(GA121)	통상법301조, 보증 지적 재산권
면세 대상	일반우대제도 (GSP)개발도상국	멕시코, 캐나다, EU 호주, 브라질, 한국, 아 르헨티나	중국을 제외한 모 든 국가
중국포함 여부	○	○	○
중국의 대응	납득이 안 됨	128개 품목(돼지고기, 과일, 와인, 견과류 포 함) 30억 달러 관세 25%	106개 품목(콩, 옥수 수, 쇠고기, 위스 키, 담배, 항공기 포함) 500억 달러 관세 25% 부과

출처: 한국 삼성경제연구소

표 2-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보호조항 조치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중국과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2월 국가 안보를 빙자해 특정 수입품에 대해 즉각 수입을 전면 금지하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초강력 무역 제재 조치인 무역확장법 232조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EU를 포함한 모든 나라는 고율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52) Huawei는 ICT(정보 통신 기술) 인프라 및 스마트 장치를 제공하는 세계적인 선도 기업입니다. 텔레콤 네트워크, IT, 스마트 장치 및 Cloud 서비스의 네 가지 핵심 영역에 걸친 통합 솔루션을 통해 당사는 모든 사용자, 가정 및 조직에 디지털 환경을 제공하여 완벽하게 연결된 지능형 세상을 추구한다.

53) 5G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따르면 최대 속도가 20Gbps에 달하는 이동통신 기술이다. 강점인 초저지연성과 초연결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가상현실,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기술 등을 구현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5G 이동통신지식엔진연구소.

부과했으나 이후 3월에는 캐나다 멕시코 EU 호주 한국 등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국은 당시 관세 부과 대상에 중국이 포함되자 중국에 대한 적대적 조치를 밝히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후 중·미 간 무역 충돌은 표면적인 변화가 됐다. 미국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2일 중·미 분쟁의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500억 달러에 이르는 중국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고 3일 평면TV, 항공기 부품 등 첨단제품을 중심으로 1,333개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다음 날 즉각 보복관세를 내렸다. 미국도 다음 날 1,00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추가로 논의하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해 무역전쟁에 대한 전 세계의 우려가 더욱 커졌다. 하지만 4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Twitter를 통해 “우리 무역 분쟁과 관련해 어떤 일이 있어도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習近平)과 나는 친구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사건으로 세계 증시는 안정을 되찾았고 세계의 우려는 해방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4월 16일 이후 미국은 중국의 ZTE(중흥통신)에 대해 미국 기업의 부품 판매 금지하고 중국산 알루미늄 패널에 대한 높은 상계 관세 부과 등 다양한 제재 조치를 취했다. 중국은 즉각 항의하고 미국 산 고량에 대해 덤핑 관정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ZTE(중흥통신) 재개를 위해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習近平)과 협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ZTE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디테일을 실천하기 위해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나라의 분위기는 또 달라졌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이 2020년 4월 초 발표한 돼지고기 등 미국 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긴밀한 무역 관계를 가진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분쟁 상대국들과의 경제적 압력을 해소해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중·미 무역 분쟁은 중·미 경제 분쟁만이 아니었다. 앞으로 유사한 무역 분쟁이 재발할 경우 한국과 중국 간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의미한다. 한·중 양국의 긴밀한 경제 무역 관계의 방향은 다음 중국의 정책에서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2) 한·일 무역 분쟁

한·일 무역 마찰에서 시작된 일방적으로 시작으로 일본 수출 통제 강화를 선언하고 있다. 2019년 7월 1일에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의 수출에 대한 두 가지 조치를 출시했다.

첫째, 한국의 수출을 모방한 개정 관리하고 한국을 분류에서 “화이트 리스트” 적용에서 제외하고 당일에 공모 받기가 시작했다.

둘째, 특정 제품에 대한 수출 허가 변경했다.

7월 4일부터 불소 폴리아미드, 광각접착, 불화수소 포함된 대한 수출 및 관련 제조기술의 양도를 총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바꿨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조치 이유에 대해서는 “한·일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손상됐다. 한국과 관련된 수출 관리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며 수출 관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⁵⁴⁾.

이번 한·일 무역 마찰에 대해 일방적으로 시작된 것은 일본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한국 측은 확정 이후 본격적으로 일본의 수출에 대해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삭제했다. 각 정부의 수출 심사 재량권을 늘리는 것이지만, 관련된 상품의 광도와 중요성, 한일 노동자 구조 및 양국의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위상을 고려하면,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세계 경기와 자유무역 규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접촉의 조치는 한국의 발을 계속 강제 징용하면서도 판결을 구현하고 있는 축적과 양국은 최근 분쟁 지역 질서의 재편을 배경으로 전략 게임의 구조적 모순이 드러났다. 마찰의 초기 대응에서 양측은 통상마찰과 역사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원칙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관련정치가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전방위 외교조직 국내 대응에도 불구하고 대결적 정책 업그레이드를 늦추지 못했고, 단기적 어려움도 빠른 속도로 해소해 장기적 전망은 경제 여파가 가시면서 가시화되고 있다. 중국에 대해 한·일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 반도체 등 양측의 마찰에 초점 글로벌 산업 가치 사슬 속에서 중국과 밀접한 관련 업계에 다양한 경제적 영향을 예의 주시할 만한 그다. 이번 무역 마

54) “대한민국 수출에 대한 조정 관리 운용”, 일본 경제산업성, <https://www.meti.go.jp/press/2019/07/20190701006/2190701006.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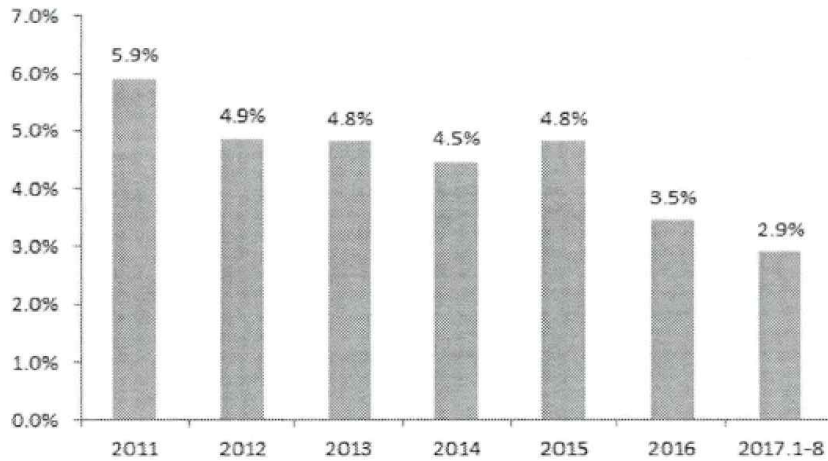
찰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한·일 관계를 확대하고 또 기존 일본 장벽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마찰과 이번 미국의 대(對) 중국 무역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매우 유사하다. 이런 무역 마찰은 전 세계 자유 무역질서에 대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⁵⁵⁾.

3) 한·중 무역 분쟁

북한 핵문제의 주요 문제당사국인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시도해 왔지만 북한의 핵무장이 가속됨에 따라 핵무기 방어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했다. 사드는 현존하는 최고의 미사일 방어 장비다. 북한 핵문제를 방지하고, 동시에 자국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어감시도 설치했다. 하지만 사드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아니라 미사일과 격추 미사일을 감지하는 기능으로 미사일 탐지 레이더의 사정거리이다. 중국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의 탐지레이더(AN/TPY-2X-밴드 레이더)를 가장 경계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사드의 탐지레이더가 전방에서 작동하면 중국 북부와 동부의 미사일 기지는 미국의 정보망에 그대로 노출된다. 중국은 동북지역에 배치된 탄도미사일 랴오닝(遼寧)성, 지린(吉林)성, 산둥(山東)성, 허베이(河北)성, 베이징 인근에 사드 탐지 레이더가 배치돼 파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도 주한미군의 사드 탐지레이더를 강력히 비난하며 중국과의 사드 배치를 일제히 반대하고 있다. 중국은 사드가 중·미 관계를 악화시키고 중국의 핵무기 균형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중국은 사드 배치 협상을 앞두고 사드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자 미국은 한국과 함께 사드 배치를 추진하기 때문에 중국은 이에 반발해 보복성 경제제재를 요구했다.

55) 李婷婷, “무역 마찰 및 한·일 관계”, 《현대 국제 관계》 2019년8기, PP.56~57.

<표2-13> 중국 소비재 시장 내 한국의 점유율



출처: 한국무역협회

중국은 한·미 양국의 사드⁵⁶⁾배치 발표 이후 외교부, 국방부 등 중국 정부 관련 부처에 대해 극력 반대 성명을 내고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했다. 중국의 보복은 우선 경제 분야부터 한국 단체관광 제한하고 한국 프로그램 금지하고 한국 롯데몰에 대한 행정조치 등 광범위한 경제 압박과 함께 한국 제품 불매운동을 통해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이 큰 폭의 매출 감소를 하였다. 그림 2-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은 2016년 하반기 이후 한국에 대한 수입소비재 수입이 크게 줄었다. 2017년에 들어선 이후 세계 경제 회복 등에 따라 중국 소비재 수입이 두 자릿수의 증가세가 나타나고 미국, 일본, 독일 소비재 등 주요 국가의 성장세가 각각 보였지만 한국만 감소세를 보였다. 기업 규모별로는 한국 대기업의 대(對)중국 수출이 크게 줄었고 한국 중소기업도 -47.1%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대표성 있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기업들은 타격이 컸다. 한국 관광산업은 사드사태 이후 중국 정부가 한국 관광 상품 판매를 금지하면서 국내 중국 관광업계에 큰 피해가 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 비중

56)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요소 중 하나이다. 이러한 사드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부터 군 병력과 장비, 인구밀집지역, 핵심시설 등을 방어하는데 사용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드 [THAAD]

이 절반 가까이 있고 1인당 지출 규모도 가장 크기 때문이다. 관광산업은 관광, 숙박, 항공, 의료, 유통 등으로 범위가 넓어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한국의 소비가 감소하게 된다. 또 한국 화장품 산업도 큰 타격을 입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화장품 산업은 K뷰티에 대한 부정과 논리가 확산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졌다. 한국의 대(對)중국 화학물질 수출 비중 중 38%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드 사태 이후 중국 내 한국 화장품은 규제 강화, 불매운동, 한국관광 규제, 비관세 수출장벽 강화, 비공식 유통의 해외직구도로에 큰 타격을 입었다. 마지막으로 이 시기 중 한·중 양국의 모든 경제 협력도 잠정 중단 상태에 빠졌다. 특히 막 시작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서비스 무역과 투자 후속 협정도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2017년 12월 14일 한국 대통령이 문재인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習近平)과 베이징에서 사드분쟁 개선에 합의했다. 양국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이때 중국 국무원 총리와 한·중 경제무역 협력을 재가동하고 사드 갈등에 대한 양국의 화해 제스처를 타진했다. 중국은 이번 사드사태로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해 중국이 한국 경제와 국제정치에서 얼마나 중요한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지를 재확인했다. 한·중 양국은 올해 수교 28주년을 맞는다. 1992년 수교 이후 한·중 양국은 이웃국가로서 경제문화국제협력을 강화해 왔다. 중국은 한국의 안보와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나라이고 중국도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 한·중 양국은 상호 협력을 통해 앞으로 동아시아에서 창출될 경제적 이익에 대해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 메커니즘을 제공해야 한다.

4) 일대일로

일대일로는 중국이 주도한 35년간(2014~2049년) 고대 동서로를 재건한 현대판 “실크로드”로 중국과 주변국의 경제무역 협력의 길을 여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관련 국가 인구는 44억 명, 경제 총액은 21조 달러고 전 세계에서 인구나 경제 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63%, 29%에 이른다. 일대일로의 특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소비시장이 촉진을 시키는 것이다. 44억 인구가 1인당 1달러만 벌어도

44억 달러나 된다.

둘째는 자원이 우위를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광물자원과 인적자원이 풍부하다. 중앙아시아, 러시아, 페르시아 만에는 막대한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이 있다.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는 노동력이 풍부하다.

세 번째는 인프라 투자가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향후 4~5년간 10조 달러의 시장이 있다. 일대일로的大部分이 개발도상국이라 인프라 건설, 도시 종합개발 등의 기회가 많다. 따라서 중국의 일대일 정책을 통해 한·중이 협력함으로써 한국의 해외 인프라 건설 사업 경험과 중국의 자금력을 연결시켜 새로운 경제 증식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중국은 최근 북한의 비핵화 합의와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대한 일대일로 논의에 참여했다. 한국의 기술력과 AIIB⁵⁷⁾ 등 중국의 자금력과 실제 참여 범위를 통해 향후 양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선행연구

1) FTA에 관한 연구

한·중 무역협력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은 중국의 경제 전반의 이해와 장래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는 동남아시아 경제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세력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 경제 집단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중 경제 무역 합작은 좋은 선택이다⁵⁸⁾.

세계 경제가 일체화되는 추세에 따라 여러 국가 간의 경제 무역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동아시아 및 어태지역 협력 체화 추진에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주는 길이다. 그는 연구하기 위해 문헌 연구법을 사용하고 있다. FTA를 통한 협력은 자신들의 산업만 보호하지 말고 서로

57) AII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위해 설립된 은행을 말한다). 2013년 중국의 국가 주석 시진핑이 동남아시아 순방 기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이 은행의 설립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58) 한광수, “한중경제력의 전망과 과제”, “Ordo Economic Journal Vol.5, No.2 Korea Ordo Economics Association”, 2002, PP.19~21.

양보해야 진정한 윈윈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⁵⁹⁾.

최근 세계경제 성장률이 둔화됐다고 대다수의 나라들은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채택한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신흥국의 보호주의가 심화되고 있다. 주로 반덤핑, 환경 제약, 지적재산권 등의 제약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 보호주의 현상을 막기 위한 다자간 무역체제를 제시하다. 자유무역협정(FTA) 같은 다자체제로 국가 간 긴밀한 경제무역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좀 더 완화된 체제를 모색하고 있다⁶⁰⁾.

한·중 FTA는 일부 산업이 큰 피해를 보고 있지만 양국 경제협력은 양국의 경제 외교적 이익이 크다고 주장했다⁶¹⁾. 지역통합 추세에 따라 FTA 등의 합의를 점점 더 많이 보고 있다. 국가 간 FTA 협정은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 외교적 전략적 존재도 있다. 한·중 FTA는 경제적, 비경제적 요소가 존재하는 협력협정이다. 그는 한국 측은 경제적 이익을, 중국 측은 잠재적 외교적 이익을 위해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한·중 FTA를 통해 장차 양국 외교, 경제, 국가안보 등의 전적인 협력의 초석으로 삼을 수도 있음을 일깨워줬다. 중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문화, 군사력, 경제권을 가진 대국이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신흥 세력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⁶²⁾. 중국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까운 이웃 국가 간의 협력관계가 중요하다. 경제적 외교안보적 평화적 굴기를 통해 비로소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 평화의 굴기의 첫걸음은 지역주의와 일치하다. 동아시아 이웃나라들 사이에서의 경제 협력부터 시작해 점차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따라서 지역 간 무역협력은 경제적 성격뿐 아니라 전략적 성격도 있다. 한국은 중국의 이웃나라이다. 양국 간 노동력과 상품, 자본 이동이 빈번한 만큼 한·중 양국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소홀히 할 수 없다⁶³⁾. FTA협정을 실행 이후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물은 약간 떨어지지

59) 조우근, “한중FTA의 경제효과와 추진에 관한 연구”, “A research on economic effects and promotion of a Korea-china FTA”, 2009, PP.22~24.

60) 권혁제, “新보호주의의 확산과 대”, 삼성경제연구소, 2013, PP.16~19.

61) 안병인, “한중FTA의 경제적효과와 추진과제에 대한연구”, “A study on Economic Effect and Task for Korea-china FTA”, 2008, PP.31~32.

62) 채미정,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한중FTA의 향후과제 및 발전전략에 관한연구”, “Study on the future challenges and development of Korea-china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all changes”, 2014, P.12.

63) 송일호, 이계영, “중국의 평화적 부상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연구”, “A study of Chinese Peaceful Rise and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2012, PP.31~33.

만 FTA를 통해 관세 품목을 낮추면 수출 감소율이 적다. FTA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평가가 초기 단계보다 개선되고 중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시각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⁶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중국과 미국의 위치 변동 격차가 크다고 본다. 중국은 미국이 가장 견제해야 할 나라가 됐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대처법은 한국과 일본을 이용해 중국한테 경제적거나 공사적인 가압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한다⁶⁵⁾.

한·중 양국 간 무역거래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 방향도 건의하고 양국이 있는 문제는 무역적자, 반덤핑정책, 무역마찰을 꼽는다. 따라서 양국 교역에 순풍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 및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⁶⁶⁾. 한·중 양국은 2008년부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 왔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한·중 교역의 비교우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⁶⁷⁾. 1990년대 중국의 대외무역은 가공무역 방식이다. 중국 경제가 폭발하면서 2000년 들어 무역기구가 기술 집약적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한국도 같은 무역기구를 갖고 있지만 한국은 기술력이 풍부하고 경제적 성숙도가 큰 나라이고 중국은 거대 시장과 인적, 과학기술이 있다. 양국은 상호 보완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경제무역 파트너십을 통해 양국은 “윈윈”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연구원 중국의 한·중 FTA 추진 배경과 주요 요소를 정리해 한·중 FTA의 경제적·비경제적·산업적 유인요소를 분석했다⁶⁸⁾. 한국 연구원은 2016년 국제사건과 경제상황을 2017년 국제정세로 전망하고 지금까지 한·중 관계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의 진로를 선택해 얻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⁶⁹⁾. 중국 시진핑 주석은 2016년 페루 APEC 정상회의에서 FTA의 실현을 강조했다. 동아시아 중국의 평화적 부상을 위한 한·중 양국의 협력은 필요한 조건이다. 한·중 양국은 자국의 이익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협조를 필요로 한다. FTA의 기본기초이념과 최근의 세계적

64) 기민경 연구원, 제현정 연구위, “한·중FTA 1주년평가와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6, PP.20~21.

65) 이송주, “미·중경쟁과 동아시아 경제협력: 통상정책을 중심으로”, 2012, PP.51~52 .

66) 오옥영, “한·중 무역장벽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Trade Barriers and Improvement between S-korea and China”, 2012, PP.45~47.

67) 맹하, “한·중무역구조의 특징과 품목별 경쟁력분석”, 2013, PP.36~38.

68) 장진민, “한·중FTA체결 전망에 대한 소고”, “ A review on the prospect of the FTA between China and Korea”. 《한용경상연구》, 《제22권2호》, 2011, PP.18~22.

69) 이태환, “중국 정세 전망과 한·중관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2017, PP.44~46.

추세를 총결산했다. 근년의 FTA 추세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세계의 보호 무역주의가 초래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FTA의 필요성과 득실을 얘기한다. 여러 나라와 한국의 FTA 현황도 설명한다. 그러면서 앞으로 FTA가 어떻게 될지 예측했다⁷⁰⁾. 수교 이후 한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를 주로 이야기한다. 그는 한·중 양국의 경제 발전 정도를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단계는 수교 이후 단순 거래 관계다. 두 번째 단계는 첫 단계보다 더 깊이 있는 WTO 회원국 간의 관계이다. 셋 번째 단계는 경제통합 관계다. 시장의 추가 개방과 무역장벽의 완화를 말한다. 그는 또 국제정치적 문제가 있지만 양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경제의 지속 및 발전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⁷¹⁾.

21세기 들어 글로벌 경제 통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학자들은 경제통합 추세를 통해 중국의 자유무역지대 전로의 특징과 부족한 점을 결합시켰다. 중국은 인접국이나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 위주로 전 세계를 파고들고 있다. 또 중국이 서명한 FTA의 수는 제한돼 있고 미국, 유럽, 일본에 비해 FTA의 네트워크 범위도 제한적이다. 전체적으로 평가한 FTA의 수준이 낮고 검토와 협상 메커니즘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자들은 중국이 FTA 네트워크의 축을 확립해 글로벌 FTA를 구축하자고 제안한다. 특히 한·중·일 FTA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통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의 평화적 통합을 위해서는 한·중 FTA 지역에서의 첫 걸음이 중요하고 생각한다⁷²⁾.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역경과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글로벌 경제통합의 흐름 속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동아시아 경제 흐름에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제시하기도하고 동아시아 경제가 일체화된다고 생각한다⁷³⁾.

학자들은 동남아 경제통합이 유럽연합(EU)보다 덜 성숙하고 발전 속도도 더디다고 주장한다. 이럴 경우 FTA는 꼭 필요한 선택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한·중 양국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에 반드시 나오는 결과라고 생각하고 한·중 무역의존도와 시장의존도를 종합해 보고 있다⁷⁴⁾. 그 결과 한·중 양국은 무

70) 마창환, “FTA이해와 활용”, 기획재정부FTA국내대책본부, 2010, PP.31~33.

71) 김재홍, “한중 경제관계 중장기 변화 추세와 과제”, KOTRA, 2017, PP.19~21.

72) 王健, “新區域主義視角下中韓組建自貿區的動因分析”, 2016, P.26.

73) 仲地鋒, “中韓自由貿易協定与東亞經濟一體化”. 《人民論壇》, 2016, PP. 51~53.

74) 蔣海曦, “歷史与現狀:中韓自由貿易關係的优劣势問題”, “Journal of Sichuan University-國際經濟研究”, 2016, PP.39~42.

역 및 시장 의존도가 높은 반면 FTA 체결에 따른 상품서비스 거래는 활기를 띠기 때문에 향후 서로의 경제파동에 영향을 받기 쉽다. 결국 한·중 FTA를 매듭짓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득이 되는 부분이 크다.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학자들을 위해 한·중 전체 화물무역, 농산물 수출입 보완, 서비스업 협력의 가속화를 주문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한·중 양국 경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한·중 FTA가 양국의 양자 간 화물무역, 양자서비스 무역, 양자 직접투자 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주로 분석했다. FTA 체결은 양국의 시장 개방을 통해 양국 교역과 투자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거대한 경제적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 한·중 FTA가 한·중·일 FTA를 비롯해 다른 경제그룹(RCEP 등)과의 협력에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도 제시했다⁷⁵⁾. 한·중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연구 대상으로 한·중 FTA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관련국 무역이론 수립 모델을 통해 한·중 FTA의 구조와 경제적 효과를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 한·중 FTA는 제약적인 문제가 있지만 양국 경제에 상호 보완성을 더하고 대외적 국제 정책에서도 공생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양국 FTA가 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한다는 데 문제의 소지가 빨리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⁷⁶⁾.

75) 李楊, 碼偉杰, 黃艷希, “中韓自由貿易協定的影響效應研究”. 《東北亞論壇》, 2015, P.61.

76) 綦曉情, “中韓自由貿易區創建的現實結構與經貿效應分析”, 2014, PP.16~18.

<표 2-14> FTA에 관한 선행연구

국가	저자(연도)	제목
국내	한광수(2002)	한·중경제력의 전망과 과제
	조우균(2009)	한·중FTA의 경제효과와 추진에 관한 연구
	권혁재(2013)	新보호주의의 확산과대
	안병인(2008)	한·중FTA의 경제적효과와 추진과제연구
	채미정(2014)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한중FTA의 향후과제 및 전략에 관한연구
	송일호, 이계영(2012)	중국의평화적 부상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연구
	기민경, 제현정(2016)	한·중FTA 1주년평가와 시사점으로 나타났다
	이송주(2012)	미·중경쟁과 동아시아 경제협력: 통상정책을 중심으로
	오옥영(2012)	한·중 무역장벽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맹하(2013)	한·중무역구조의 특징과 품목별 경쟁력분석
	장진민(2011)	한·중FTA체결 전망에 대한 소고
	이태환(2017)	중국 정세 전망과 한중관계
	마창환, 2010,	FTA이해와 활용
김재홍(2017)	한·중 경제관계 중장기 변화 추세와 과제	
국외	王健(2016)	新區域主義視角下中韓組建自貿區的動因分析
	仲地鋒, 2016,	中韓自由貿易協定与東亞經濟一体化
	蔣海曦(2016)	歷史与現狀:中韓自由貿易關係的优劣勢問題
	李楊(2015)	中韓自由貿易協定的影響效應研究
	綦曉情(2014)	中韓自由貿易區創建的現實結構与經貿效應分析

2) FTA 투자규정에 관한 연구

한국 기업의 대(對)중국 투자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성공적인 대(對) 중국 투자의 바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한국 기업은 지금까지 중국을 저임금 국가, 저급 상품 시장이라는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접근 하였고 투자 면에서도 소극적 투자를 전개해 왔다고 주장한다⁷⁷⁾.

중국 산둥성의 경영환경과 진출 현황 및 이론에 대해 한·중 수교 후 중국 산둥성에 진출한 기업을 중심으로 성공요소와 문제점을 비교 분석하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직접 투자에 필요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했다⁷⁸⁾.

77) 왕운운, “한국기업의 대 중국 직접투자 전략에 관한 연구”, 2012, PP.22~23.

78) 서문정, “중국 중소기업의 중국진출에 대한 연구, 국제문화대학교”, 2003, PP.35~36.

세계적인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한·중양국은 자유무역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양국 간의 지리적인 인접 및 교통의 편리성으로 양국의 비교우위를 강화할 수 있고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⁷⁹⁾.

중국시장의 투자진출현황과 현지 진출기업의 마케팅 전략을 인터뷰방법을 통해 분석하고 한국 기업이 중국으로 직접투자의 방식으로 진출할 때 필요한 경영 전략을 제시하였다⁸⁰⁾.

“한·중 FTA체결이 한국 분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 정태적인 효과로 무역 창출 효과와 무역 전환 효과가 있으며 동태적인 효과로는 시장 확대 효과, 경쟁 효과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직접투자의 정태적인 효과를 살펴보면 무역 창출 효과에 의해 무역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가 실현되고 이에 따라 국내의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며 그 결과 역내국의 후생이 증가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보았다⁸¹⁾.

해외직접투자의 성과는 다양한 요인 등의 영향을 받는다 어느 한 가지 이론만으로 성과 결정요인을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통합한 것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⁸²⁾.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다국적기업이 현 지국에서의 외국인비율을 상회하고 현 지경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불리한 덤을 극복할 수 있는 우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⁸³⁾.

중국 기업의 글로벌 경영 패러다임을 한·일 종합상사 모델로 전환하고, 정부 주도하 은행이나 대형 국유자산관리회사의 참여로 국가업종 협회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업종별 1급 상사를 먼저 설립한 뒤 1급 상사 위에 서비스 통합을 통해 대형 종합상사를 형성하고, 주로 서비스통합 중소기업을 위주로 해야 한다고

79) 추재주, “한중무역전망”, 2002, P.17.

80) 강운영, “한국 중소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 전략에 관한 연구”, 2005, PP.41~42.

81) 신태용, “한국 FTA체결이 한 분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산업연구원연구, 2005, P.24.

82) Hitt, M.A, Hoskisson P.E and H.Kim,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Effect on Innovation and Firm Performance in Product-Diversified Firm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40, No.4 pp. 768-798. 1997, PP.40~42.

83) Hymer, S.H., “the international operations of National Firms, Cambridge: MIT Press”. 1976, P.49.

주장했다⁸⁴⁾.

투자 및 무역관계에 대한 계량적 연구를 통해 한·중 FTA의 외국인 직접투자 기대효과를 검토한 결과가 있다. 한·중 FTA에 따른 투자효과는 무역효과보다 훨씬 적다. 두 가지 요인에도 균형이 맞지 않는 한·중 FTA가 한국에 미치는 투자 창출효과는 뚜렷하며 중국에 미치는 투자이전효과는 훨씬 클 것으로 분석됐다⁸⁵⁾.

한·중 무역 성장, 투자 촉진, 상품구조 보완성 등 9대 분야에서 한·중 FTA의 유리한 입지, 한·중 무역적자, 무역마찰, 민감한 산업개방 우려 등 9대 분야로 나눠 한·중 FTA의 악영향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⁸⁶⁾.

한·중 교역상황 분석과 관련 문헌 연구를 통해 한·중 양국 간 산업의 차별성과 상호보완성이 존재하고 한·중 FTA 체결로 양국에 이익이 된다. 복지혜택이 높아 지지만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개방된 시장이 일부 부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⁸⁷⁾. 한국 시장 개방이 곧 시작될 것이다. 초급품 가운데 농업, 해산물 등 산업에 미치는 충격이 크고 자원 집약적 산업과 일부 노동집약적 산업은 다소 불리할 수 있는 반면 중국 산업은 이에 상응하는 수혜를 입게 되며 중국으로서는 현재의 막대한 무역적자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84) 張驍、楊忠, “國際直接投資理論的發展脈絡及最新進展”, 《國際貿易問題》, 2005, PP.121~125.

85) 李炳輝, “中韓FTA外商直投投資預期效應研究”, 2012, P.17.

86) 楊天晶, “中韓經貿關係和建立雙邊FTA的可行性研究”, 2013, PP.23~24.

87) 閔岩, “中韓FTA預期經濟效應研究”, 2014, PP.76.

<표2-15> 양국 투자에 관한 선행연구

국내/외	저자(년도)	제목
국내	왕운운(2012)	한국기업의 대 중국 직접투자 전략에 관한 연구
	서문징(2003)	중국 중소기업의 중국진출에 대한 연구
	추재주(2002)	한·중무역전망
	강운영(2005)	한국 중소기업의 대(對)중국 직접투자 전략에 관한 연구
	신태용(2005)	한국 FTA체결이 한 분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국외	H i t t , M . A , Hoskisson P.E (1997)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Effect on Innovation and Firm Perfmance in Producut-Diversified Firm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H y m e r , S.H(1976)	the international operations of National Firms, Cambrige: MIT Press
	張驍、楊忠(2005)	國際直接投資理論的發展脈絡及最新進展
	李炳輝(2012)	中韓FTA外商直投投資預期效應研究
	楊天品(2013)	中韓經貿關係和建立雙邊FTA的可行性研究
	閔岩(2014)	中韓FTA預期經濟效應研究

3) 서비스 무역협정에 관한 연구

성일석은 한국경제의 개방화를 배경으로 거래규모도 크게 신장하고 거래형태도 기업과 가계의 서비스수요 패턴의 변화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경제의 서비스화가 서비스산업의 구조고도화라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지만 제조업에 비하여 생산성 향상이 미흡하고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하여 서비스가격이 재화가격에 비하여 상승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분석하였다⁸⁸⁾.

또는 서동윤, 최문혁의 연구에서 한국운송서비스무역의 국제경쟁력과 비교우위 결정요인의 결과는 화물운송에 대해서는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 여객운송에 있어서는 1인 당 GNP와 기술의 요인이 기타운송에 있어서는 규모의 경제가 비교우위요인으로 나타나 가설과 일치된 결과가 도출되었다⁸⁹⁾.

88) 성일석, "우리나라 경제의 서비스화와 서비스 무역구조", 무역학회지, 1994, PP.31~32.

89) 서동윤, 최문혁, "한국운송서비스무역의 국제경쟁력과 비교우위 결정요인", 한국항만경제학회지, 1998, P.55..

김석민은 중국 서비스무역의 국제경쟁력과 교역패턴 분석이라는 연구를 보면 패널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중국 서비스무역의 무역패턴을 분석한 결과는 운송 서비스무역에 대한 양국의 경쟁관계가 심화되면서 중국이 경쟁력을 빠르게 회복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한·중 간에 여행서비스무역은 수출구조가 상이해지면서 중국의 경쟁력이 커지게 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⁹⁰⁾.

인도의 서비스 무역 발전 분석을 통해 서비스 무역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경로가 정부의 대(對)교육 투자 확대하고 자연인 이동의 개방 등 형식적인 서비스 무역이라고 설명했다⁹¹⁾. 러시아 WTO 진입 효과에 대한 예측연구를 통해 서비스업의 FDI 유입이 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⁹²⁾.

유럽 연합의 서비스업 상황을 연구하였고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임금소득과 고용의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를 고용보호조례 완화로 보고 있다⁹³⁾.

정한 상품 생산을 늘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나라가 특수 서비스 무역을 늘리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노르웨이의 서비스 무역은 배로부터 비롯되는데 이는 해양에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 멕시코 부근의 서비스 무역 수입은 관광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기후 조건과 지리적 위치를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의 부유함과 통신업의 우위에 의해 많은 선진 공업국들이 금융 서비스 무역에서의 우위를 해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⁹⁴⁾.

중국과 인도의 서비스 무역을 비교한 결과 중국은 서비스 무역 총액 및 노동자본 집약적 서비스 수출에서 인도는 GDP 대비 서비스 무역 비중 및 기술집약적 서비스 수출에서 각각 우위가 있다고 생각한다⁹⁵⁾.

무역경쟁지수 업종별 수출입 점유율, 업종별 수출입 차액 등의 지표를 종합해 구조변경이 중국의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중국 서비스의 총체적 경쟁력이 낮다. 불합리한 서비스 교역 구조를 주로 구현해 전통 서비스산업의 우위가 약하고 현대 서비스업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

90) 김석민, “중국서비스무역의 국제경쟁력과 교역패턴 분석”, 2011, PP56~58 .

91) Pragsabth k Reddy, Gaurav Gairola. “India’s Services Boom—the Need for Balanced Growth. Working paper Series”, 2002, P.45.

92) Kolomiets Anastasia, “The Impact of WTO Entry on the Russian Economy”, 2013, P.33.

93) Zurae, “Study on the Trade Policy of Internal Services in Europe”, 2015, PP.49~50 .

94) James Lee, David Walters, “International trade in construction, design, and engineering services” 1989, PP.33~36.

95) 劉嵐, “中印國際服務貿易競爭力比較研究”, 《企業經濟》2012年第10期. PP.4~5.

다고 밝혔다⁹⁶⁾. 고급 자원과 재능 요소 부족하다. 규모의 경제 효과와 정부 독과점 등을 중국 생산성 서비스 무역 경쟁력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생산성 서비스 무역 수출보다 수입이 경제성장에 효과가 제일 크다고 생각한다⁹⁷⁾. 중국과 다른 나라의 생산적 서비스 무역 부문별 국제시장 점유율하고 무역경쟁력 지수와 디스플레이 비교우위 지수를 계산하고 비교했다. 정부와 업계 협회의 추진력을 발휘해 인적 자본을 흡수 육성해야 중국 생산적 서비스 무역의 국제경쟁력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⁹⁸⁾.

<표2-16> 서비스 무역에 관한 선행연구

국내/외	저자(년도)	제목
국내	성일석(1994)	우리나라 경제의 서비스화와 서비스 무역구조
	서동운, 최문혁(1998)	한국운송서비스무역의 국제경쟁력과 비교우위 결정요인
	김삭민(2011)	중국서비스무역의 국제경쟁력과 교역패턴 분석
국외	Prasgabth k Reddy, Gaurav Gairola.(2005)	India's Services Boom-the Need for Balanced Growth. Working
	Kolomiets Anastasia (2013)	The Impact of WTO Entry on the Russian Economy
	Zurae(2015)	A Study on the Trade Policy of Internal Services in Europe
	James Lee David(1989)	International trade in construction, design, and engineering services
	劉嵐	中印國際服務貿易競爭力比較研究
	趙景峰	中國服務貿易：總量和結構分析
	林嵐, 2009,	中國生產性服務貿易研究
付華, 周升起	貿易便利化与中國出口貿易	

96) 趙景峰, “中國服務貿易：總量和結構分析”, 《世界經濟》, 2006年第8期, PP.12~13.

97) 林嵐, “中國生產性服務貿易研究”, 2009, P.29.

98) 付華, 周升起, “貿易便利化与中國出口貿易：基于改進“引力模型”的分析”, 《商業研究》2014年11期, PP.59~61.

Ⅲ. 한·중 FTA 투자 규정과 서비스 무역 협정

1. 주요 내용

1) 서비스 무역 협정

서비스 무역 규칙 한·중 서비스 무역 시장의 개방과 서비스 무역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법적 규칙이다⁹⁹⁾. 협정에서 서비스 무역의 존재 형식은 여전히 다음의 네 가지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제공, 역외 소비, 상업적 존재, 자연인 이동¹⁰⁰⁾: 한·중 양국은 모두 WTO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쌍방은 WTO와 GATS의 관련 규칙을 따라야 한다. 시장접근, 국민대우의 원칙 그리고 최혜국 대우원칙에 관한 협정은 GATS 관련 규칙을 직접 만들거나 인용했다. 그러나 협정은 자연인 이동장절, 한국 노동시장의 특수성과 민감성, 양국 간 무역과 투자의 막대한 잠재력을 고려할 때 중국 대외적으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자연인 이동장절과 미세한 차이가 있다. 또 관심도가 높은 비자편리화와 투자촉진 측면에서 양국이 대등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양국 간 인적유동성을 강화하고 양국 경제의 융합을 촉진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GATS의 규정을 넘어선다¹⁰¹⁾.

(1) 서비스 무역 범위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의 관련 규정이 8~11장에 집중된다. 8~11장은 서비스 무역, 금융 서비스, 전신, 자연인 이동이다. 적용 범위, 시장접근, 국민 대우, 구체적인 양허서, 기타 약속, 국내 규제, 투명성, 지급과 이전, 이익의 거부, 서비스무역위원회 등 관련 의무요구사항이 배정된다. 또 한·중FTA는 처음으로 금융과 텔레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별도 협정했다. 협정 제8.2조는 서비스의 범위에 대해 명확한 구속했다, 이 규정의 어떤 것도 자연인의 영토 진입이나 그 영토 내

99) 董佳祺, “中韓雙邊服務貿易發展及競爭力比較研究”, PP.13~14, 2019.

100) 한·중FTA협정문 제7장1.2항.

101) 《한·중자유무역협정에 대한 50개 질문》.P.54.

의 일시적 거류 관리를 저해해서는 안 되며, 국경의 완전성 유지와 자연인의 질서 있는 국경 통과를 포함한다.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고 또 다른 계약 당사자가 본 규정과 구체적인 약속의 조건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상실이나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다¹⁰²⁾.

(2) 시장접근

서비스 무역 시장접근(Market Access)은 계약 당사자가 구체적인 약정에 따라 양허된 표에 열거된 서비스 부서를 자국 시장접근 조건과 규제를 결합해 다른 계약 당사자에게 자국의 서비스 무역 시장을 개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¹⁰³⁾. 한·중FTA에서 외국의 화물서비스의 자국 시장 진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가장 흔하고 직접적인 무역장벽이다. 국제 서비스 무역 중의 시장접근 제도에 대하여 GATS 제16조¹⁰⁴⁾는 이에 대하여 충분히 규정을 하였다. 따라서 시장접근제도는 체결국들이 자국 서비스 시장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진출을 허용하는 범위에 합의해 최종 합의한 것으로 일단 약속이 이뤄지면 다른 나라의 서비스나 서비스 제공자의 국내 진출을 막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시장접근 제도는 보통 영허표 형식으로 각국이 만들어진다.

협정 제8.3조는 시장 접근에 관한 것이다. 협정으로 볼 때 중국의 한·중FTA 시장접근 규정은 GATS 16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제1항은 쌍방이 구체적인 양허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구체적인 양허표를 보면, 국경을 넘나드는 제공과 역외 소비 측면에서, 양허표에 포함된 서비스 부문은 시장접근 측면에서 비교적 제한이 적으며, 거의 무제한이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 기업의 중국 내 기업 설립을 상업적으로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¹⁰⁵⁾. 자연인 이동의 경우 시장접근이란에 따른 자연인 입국 및 임시 거류와 관련된 조치'만 규정돼 있다. 한국의 양허표에서

102) 한·중FTA협정문 제8장 2항

103) 강승관, 2009,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상 동종성에 관한 소고”.

104) GATS 제16조 제1항은 각 회원이 자 기타 어떠한 구성원에게 주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대우를 그 양허표에 명시된 동의와 명시된 규정, 제한과 조건보다 적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변호사 취득을 규정한 상업서비스 제한이 상세히 나와 있다. 규정에 중국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서비스 제공자가 한국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외 조건을 규정하였다. 한·중은 양국의 서비스 무역 시장 진입에 대한 규정은 양국의 서비스 발전 현황과 관계가 있다. 만약 너무 일찍 일부 서비스 시장을 개방한다면 양국의 서비스 산업 공동 발전에 불리할 것이다¹⁰⁶⁾.

(3) 내국민 대우

국민 대우 원칙은 19세기 초에 성립되었다. 주로 자본주의 국가들이 자신의 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해 대외무역을 할 때 타국에 제기하였다. 내국민 대우 원칙이 글로벌 경제무역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상품무역뿐 아니라 서비스무역, 지적재산권, 투자 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상품무역 분야에서 국민 대우의 원칙은 이미 각국의 보편적인 인정을 받았다. 서비스 무역 분야에서 국민 대우는 사실 구체적인 약속이 없다. 어느 한쪽이 필요하면 이미 개방을 약속한 서비스 부서를 다른 나라의 서비스 제공자에게 국민으로 대우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국가 안보와 밀접한 서비스 부분에서 모든 서비스 부문을 자국민으로 대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협정 제8.3조는 국민에 대한 대우에 관한 규정으로 제1항은 구체적인 양허표에 포함된 부서에 대해 요구되는 자격과 전제를 준수할 경우 한쪽은 협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대해 다른 한 당사자에게 상응하는 대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이 문은 또 뿌리를 규정하였다. 본 조항에 따른 구체적인 약속은 서비스나 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외국의 특성에 따른 어떠한 고유한 경쟁 열세에 대해서도 임일채약자가 보상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각국에서 국민 대우에 대해 구체적인 약속을 국제실천에는 두 가지 형식이 존재한다. 두 가지는 긍정적 목록과 부정적 목록이다. 포지티브 리스트는 해당 규칙이 리스트에 명시된 서비스 부문 및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해 합의된 것을 말

106) 西政大, “중국·아세안자유무역협정 서비스무역 연구”, “中國·東盟自由貿易協定, 服務貿易協定研究”, 2010, PP.41~42.

한다. 반면 부정 리스트는 서비스 부문이나 서비스 제공 방식이 협약의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리스트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자유화 정도와 투명성이 높아 지역서비스 무역거래에서 네거티브 리스트를 채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개도국에 속해 있고 선진국과는 거리가 있는 나라여서 통상적으로 FTA에서는 긍정적 목록을 채택한다. 한·중FTA 중 부속 문서 8-A에서 국민이 대우하는 서비스 부문과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해 긍정적 리스트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속문서 8-A-1에는 중국 서비스 부문과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국민 대우와 국민 대우의 제한이 있다¹⁰⁷⁾.

협정 제8.4조 제2, 3항은 국민에 대한 대우의 실질적 요구이다. 계약 당사자가 또 다른 계약 당사자에 대한 서비스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본국과 동종 서비스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형식적으로 동일하거나 다른 대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1항의 요구사항을 만족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규정은 한·중이 서로 상대국 국민에 대한 대우를 할 때 자국 국정에 따라 교역조건에 맞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조치만 취하면 상대국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 자연인 이동제도

양국의 국정에 근거하여, 중국은 개발도상국 이고 국가별 인구 총액은 13억 명을 넘는다. 한국은 인구 5000만 명이 넘는 선진국이다. 양국 FTA체결의 자연인 이동 부분은 민감한 이슈로 한국과 중국이 각각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약속(협정 부속문서 11-A)¹⁰⁸⁾을 했다, 협정 이외의 인원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지 못한 일반인의 이동이 배제된 것을 의미한다. 인원 구분을 통해 협정문에 포함된 각 인원에 대한 자신의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협정의 수준과 활

107) 국민 대우 부속부서 8-A-2는 시청각 서비스, 공운서비스, 의료서비스 부문에 포함된 국내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모든 기존 보조금을 약속하지 않는 등 한국 서비스 부문과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국민 대우와 국민 대우를 제한하고 있다.

108) 자연인 이동제도1-A협정에서 자연인은 비즈니스 방문자, 서비스 판매자, 양측 사내 유동인력, 계약서비스 제공자로 분류됐다.

용성을 높일 수 있다.

임시 입국에 대해서는 한국 양허포은 중국 내 입국자들에 대한 입국 시한을 중국 비즈니스 방문자의 입국 및 임시 체류기간 90일 이상, 내부 유동인 입국 체류기간 3년, 특정 계약서비스 제공자 최장 1년으로 정했다. 그리고 비자발급에 대한 협정 부속문서 11-B는 비자 편리화에 대한 약속을 했다. 첫째, 비즈니스맨의 임시 입국과 관련하여 첫 합법 입국 및 불량 없 입국 후 1년간 복수비자 유효기간, 입국 후 최대 30일 이상 체류할 수 없으며, 둘째, 한국 회사의 내부 유동인 및 투자자는 거주중, 취업중, 외국전문가증을 발급할 때 즉시 2년의 유효기간이 주어지며, 처리가 연기될 경우 가속된다. 그리고 중국국민은 한국에서 외국인 등록증을 신청할 때 이와 같은 서비스를 얻을 수 있다. 비자 편리화는 양국 기업인의 상호 통신을 촉진할 뿐 아니라 양국 관광업계에도 큰 도움이 된다.

2) 투자 규정

(1)투자범위

한·중FTA 협정문의 제 12장에서 투자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계약국이 본 협정을 체결하여 법률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협정 제12장에 따르면 계약국 일방의 투자자가 계약상대국의 법률 규정을 따라 자유롭게 투자하거나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 투자 기업은 계약상대국의 법률, 법규를 운용하는 법인이나 실제 회사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한국제화폐기금 조치 협정에 규정한 대로 자유롭게 화폐를 사용하고 경영, 영업, 운영, 유지, 사용, 향유 등의 투자행위를 처분할 수 있다. 또 한 투자자가 소지한 재산을 상대국에 가서 기업과 기업의 지점에 투자할 수 있고 주식, 증권 또는 그 밖의 형태의 기업에 대한 지분 참여에 대한 권리가 있다¹⁰⁹⁾. 그 밖에 도채권, 회사채, 대부 및 그 밖의 형태의 부채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 완성품인도, 건설, 경영, 생산 또는 수익배분계약을 포함한 계약에 따른 권리,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상표권, 식물신품종보호권, 상호, 원산지표시 또는 지리적 표시 및 미공개정보 등에

109) 한·중 FTA투자협정 제12.1조.

대한 권리가 인정되며 기타 모든 유형의 자산, 동산 및 부동산, 리스, 적당권, 유치권과 같은 모든 재산권이 인정된다.

(2) 내국민 대우 원칙

WTO TRIMS 협정이나 FTA 투자협정에서 투자 보호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내국민 대우다. 한국이 체결한 모든 FTA 투자협정에는 국민 대우가 규정돼 있다¹¹⁰⁾. 국민 대우와 관련해 언제부터 외국인 투자에 동등한 대우를 해 주느냐가 중요하다.

한·중 FTA 투자협정에서 규정한 국민대우는 각 당사국이 자국 영역 내에서 상대국의 투자자와 적용 대상자에게 투자활동과 관련된 동종 가운데 자국 2차 및 그 투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보다 더 많은 대우를 해주고 있다¹¹¹⁾. 그러나 2항에서 현행 및 과거의 조치를 유지하면 이런 조치는 국민 대우가 적용되지 않는다.

(3) 최혜국 대우

한·중 FTA 투자협정에는 제3국 투자자 및 투자에 대한 처우보다 상대국 투자자 및 투자에 대한 국제통상법상의 가장 후한 대우가 포함돼 있다.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서 투자 활동과 제12.2조 제2항에 따른 투자의 허용과 관계된 사항과 관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적용대상투자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또 한·중 FTA 투자협정인 최혜국 대우에는 각종 동맹, 자유무역지역과 체결된 유사협정이나 다른 형태에 대한 설명 없이 본 투자협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110) 가령 한-미FTA는 비차별대우로서 최혜국대우와 함께 내국민대우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동협정에 따르면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일한 상황'에서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국은 투자의 설립전 단계 및 설립 후 단계의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해 내국민대우의무를 부여할 의무를 진다.(한국-미국FTA 제11.3조).

111) 한·중 FTA투자협정 제3조.

(4) 투명성 원칙

국제 상에 대부분의 투자협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규의 공고나 문의에 응답할 수 있는 투명성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한·중 FTA투자협정에서도 별도로 투자에 대한 투명성을 규정하고 있다. 계약당사국은 자기 나라에서 규정한 법규, 법률, 행정절차, 사법절판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상대국의 투자기업이나 투자활동을 하는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그 법규를 시행하는 기관 이름 및 주소도 공개해야 한다. 또한 한·중 FTA투자협정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한 계약국이 다른 계약국의 새로운 규정이나 조치를 실시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대국에서 건의를 요청하여 명확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

(5) 수용 및 보상 원칙

수용 및 보상은 주최국이 국가의 공공 이익을 위하여 채택한 조치이다¹¹²⁾. 국가의 공공 이익을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이나 재산권을 주최국의 모든 관할 범위 내에 귀속하고 그 귀속한 재산이나 재산권에 상응한 금액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한·중 FTA투자협정에 수용 및 보상에 관한 조항은 국제투자법규의 중요한 조항 중 하나이다. 한·중 FTA투자협정도 마찬가지로 수용 및 보상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재산의 수용이나 국유화로 인해 재산의 손실을 입은 경우 주최국이 외국인투자자에게 그에 상응한 가치를 보상해야 한다¹¹³⁾. 보상은 지체 없이 지급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상업이자율에 따르고 화폐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¹¹⁴⁾.

(6) 송금원칙

112) 董佳祺, “中韓雙邊服務貿易發展及競爭力比較研究”, 2019, P79.

113) 한·중 FTA투자협정 제2항~4항.

114) 한·중 FTA투자협정 제3항.

국제투자규범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대국에 투자한 재산을 자유롭게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자자들의 목적은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자유로운 경영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거나 재산을 증대하여 본국으로 안전하게 송금하는 것이다. 따라서 송금은 투자규정 중에 제일 기본적인 조항이라고 생각한다¹¹⁵⁾. 그래서 해외투자를 많이 하는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자유롭게 송금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BIT를 체결했다¹¹⁶⁾. 한·중FTA투자협정에서도 송금조항에 대한 규칙하고 있다. 한·중FTA투자협정문에 따라 각 당사국은 적용 대상투자에 관한 모든 송금이 자국 영역내외로 자유롭게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는 규칙이나 온다¹¹⁷⁾. 송금 당일의 시장 환율에 따라 지체 없이 자유교환성통화로 이루어지는 송금을 방해해서는 안 되도록 보장하고 있다¹¹⁸⁾. 또한 송금 조항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외국인투자자가 파산, 지급불능, 유가증권이나 파생상품의 발생, 형사범죄 등 부당한 행위를 생길 때 주최국이 자국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해 송금을 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규정한다.

2. 한·중 투자 규정 및 현황

1) 한·중 투자 규정

(1)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진입 분야

나라마다 상황에 따라 자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접근 분야는 어느 정도 제한되고, 특히 중국은 세계 최대의 개발도상국으로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접근 분야는 더욱 번잡한 분류와 규제를 가진다. 전체적으로 중국은 국정에 따라 직접

115) 西政大, “中國·東盟自由貿易協定, 服務貿易協定研究”, 2010, PP.41~44

116) M. Sornarajah, 2004, “The International Law on Foreign Invest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238.

117) 한·중 FTA투자협정문 제12.10조 제1항.

118) 다만 (a) 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 (b) 증권의 발행, 거래 또는 중개, (c) 범죄 또는 형사범죄, 또는 사법 절차에서의 명령이나 판결의 이행 확보, (d) 통화 또는 다른 통화 증서의 송금의 보고와 같은 상황에서는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성실에 입각한 법률의 적용을 통하여 송금을 지연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다.

투자 금지,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 그리고 민감한 분야에 대한 특별규정을 여러 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가. 외국인직접투자금지

중국에서 국가 안보와 국민 이익, 그리고 위법성을 관련되는 기업을 금지한다. 중국의 합자경영 기업 법 시행조례의 제4조에는 상응하는 원칙적 규정이 있다. 또 중외 합자경영 기업 법 시행세칙의 9조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다. 이러한 원칙적인 규정은 국가이익이 주최국에 중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외국 직접투자를 금지하는 기구체 분야에서는 중국이 2002년 작성한 외국인 투자 산업 지도 목록에 33개 항목에 걸쳐 세부 규정을 두고 있다¹¹⁹⁾. 이들 33개 항목은 대부분 민족경제 발전의 명맥을 결정하고 있어 중국의 경제발전에 중대한 존재 가치를 지닌다. 이들 분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금지는 민족경제 발전에 매우 강한 필요성을 갖고 있다.

나. 외국인직접투자 제한

중국은 외국의 직접투자에 대해 제한을 거시적으로 두 가지로 나뉘 있다. 하나는 중국 측 지분율에 대한 특별요구가 있는 규제 분야이고 하나는 지역에 대한 특수규제 항목이다. 중국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규제하는 분야에 관한 규정이 까

119) 《외국인 투자 산업 지도목록》 제4조. 외국인직접투자 금지하는 업종은 중국 희귀 및 특유의 희귀 우량 품종의 연구개발, 농작물, 종축금류, 생산, 관할해역, 수산물 어획, 텡스텐, 몰리브덴, 주석, 안티몬, 형석 탐사, 채굴, 희토류 탐사, 채굴, 선광, 방사성광산의 탐사, 채굴, 선광, 한약용 음료의 증발, 볶음, 열, 굽기 등 포제기술의 응용 및 중약 비밀처방제품의 생산, 방사성광산의 제련, 가공, 핵연료 생산, 무기 탄약제조, 선지, 먹피 생산, 항공 교통 통제, 우편회사, 우편물의 국내 택배업무, 담배잎, 껌, 복불 담배잎 및 기타 담배제품의 도소매, 사회조사, 중국법률사무자문, 인체줄기세포, 유전자진단 및 치료기술 개발과 응용, 대지측량, 해양측량, 항공촬영, 지상이동측량, 행정구역경계측정, 지형도, 세계정구지도, 전국정구지도, 성급, 의무교육기관, 언론기관, 도서, 신문, 저널의 편집출판 업무, 음반 및 전자출판물의 편집출판제작 업무, 각급 방송국(역), 방송국(역), 방송채널(술), 방송위성, 위성상행역, 위성수신소, 마이크로웨이브역, 모니터대, 유선방송, 라디오방송주문형비디오와 위성방송 지상 수신시설은 안전하다. 포장 서비스, 방송프로그램제작경영회사, 영화제작사, 배급사, 케이블회사, 인터넷신문정보서비스, 인터넷출판서비스, 인터넷시각각프로그램서비스, 인터넷서비스사업장, 인터넷문화경영(음악제외), 커넥션인터넷 게시물 서비스, 문화재 경매를 하는 경매업체, 문화재 상점, 인문사회과학연구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름지만 외국인 투자 방향에 대한 지도 규정 6조에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제한하는 일반적인 규칙이 들어 있다. 이런 일반적인 규칙들은 총체적으로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나를 근거로 하고 있는 《외국 투자 산업 지도목록》 외국인직접투자접수 제한 프로그램은 77개다¹²⁰⁾. 실제로 이 목록 중 77개 항목 외에 중국 기업과 합작하거나 협력해야 할 항목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들 항목은 표면적으로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장려하는 사업이지만, 실제로는 장려를 전제로 국내 자본을 어느 정도 흡수해야 하고, 자국의 지분 비율을 강조해야 하며, 본질적으로 여전히 외국 직접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다. 일부의 민감한 업종 제한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진입 분야는 민감 업종은 은행업, 증권업, 기초전기통신업, 법률 서비스업, 의료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다¹²¹⁾. 중국은 WTO 진입 이후 이들 민감한 업종에 대해 서로 다른 수준의 공약을 했고, 이들 공약은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진입 제도를 보완한 것으로 중국은 각기 다른 시기에 관련법 규정을 제정해 민감한 업종에 대해 자세히 적고 있다. 외국인 투자 유치 구체적인 규칙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들 민감한 업종에 대한 규제도 구체화되고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라는 특수한 규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¹²²⁾.

(2) 한국 외국인 직접투자

120) 외국인 투자 산업 지도목록.

121) 외국인 투자 산업 지도목록, 제6조 중국은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은 농작물 신종종 선정 및 종자생산, 석유, 천연가스, 특수 및 희소탄류 탐사, 채굴 (중국 지주), 흑연 탐사, 채굴, 출판물 인쇄(중국측 지주), 희토류 채련, 분리(합자, 협력에 한함), 텅스텐 채련, 자동차 완성차, 전용차 제조, 선박 제조 및 수리, 간선, 지선 항공기 설계, 제조 및 정비, 범용 항공기 설계, 제조 위성 방송 지상 수신 시설 및 핵심 생산품,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전력망의 건설, 경영, 도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가스, 열력과 공급배수관망의 건설, 운영 (중국 지주), 철도간선로망의 건설, 경영, 철도여객운송회사, 국내 수상운송회사, 민간공항의 건설, 경영, 공공항공운송회사, 범용항공사, 통신회사, 비, 밀, 옥수수 수매, 도매, 선박대리, 주유소,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선물회사, 시장조사, 측량회사, 학전, 보통고등학교와 고등교육기관, 의료기관, 방송 프로그램, 영화 제작 업무, 영화관의 건설, 운영, 공연매니지먼트 등 규정하고 있다.

122) 黃麗充, “中國外商投資產業指導目錄問題研究”, 2014, PP.66~69.

한국은 중국과 다른 국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보다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진입규정이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장려 위주이고 규제를 보조하는 정책이다¹²³⁾.

가. 외국직접투자를 금지분야

일반적으로 한국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근거하여 법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한국에서 외국직접투자를 할 때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2,000개 업종 가운데 50개 업종이 외국인 직접투자 금지 업종에 속한다¹²⁴⁾. 이에 따라 개정된 신산업 분류 가운데 외국인 직접투자를 금지한 업종은 기존 47개에서 63개로 늘었다¹²⁵⁾. 그렇다고 한국이 외국 직접투자에 대해 규제가 엄격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외형적으로 늘어난 것은 단순 산업세화와 산업종목 구분으로 정부가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정책성향과 인센티브 위주로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¹²⁶⁾.

나.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제한 분야

한국은 전반적으로 외국 직접 투자가 개방하고 자유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다. 외국 직접투자에 대한 기업의 대우가 주최국 기준보다 낮거나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법인에 부담을 지우는 정책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장은 올해 초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¹²⁷⁾. 지금까지 한국은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 지도 목록은 아래 표 3-1에 있다.

123) 黃麗充, “中國外商投資產業指導目錄問題研究”, 2014, P.35.

124) 한국표준산업분류표.

125) 국영우편, 중앙은행, 증권 및 선물거래소, 금융시장 관리, 입법기관, 공공행정기관, 외교기관, 국방기관, 법원, 검찰, 경찰, 소방, 교육기관, 공회, 종교 및 정치단체 등이다.

126) 李基元, “中韓外資准入制度比較研究”, “한·중 외국인 투자 준입 제도 연구”, 2007, PP.27~38.

127) 王德華, “中韓外國直接投資准入法研究”, “한·중·외국인 직접투자 준입 법에 관한 연구”, 2013, P.39

<표3-1> 한국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

산업	제한 표준
곡물 및 기타 식량 작물	벼 재배외 보리 재배 외 모두 허용
근해 수산업	외국인 투자 비율 50% 이하
연해 수산업	외국인 투자 비율 50% 이하
신문 및 잡지 발행업	외국인 투자 비율 50% 이하
잡지 및 정 기간 발행업	외국인 투자 비율 30% 이하
핵연료 가공	원자력 발전 연료의 제조, 공급을 제외 모두 허용
발전업	정부 투자 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 1항 규정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이 운영하는 업종이 아래 요건을 구비할 경우 모두 허용(단, 원자력을 이용하는 발전업은 운영하는 것이거나 기타는 허용하지 않다) 외국인 투자 비율 50% 이하 외국 투자자가 보유한 표결권이 있는 주식은 국내 제1주주 이하여야 한다
육류 도매업	외국인 투자 비율 50% 이하
내항 여객운수업	남·북한 간 여객이나 한국과 합자하는 화물운송 회사 외국인 투자 비율 50% 이하
정기 항공 운송업	외국인 투자 비율 50% 이하
부 정기 항공 운송업	외국인 투자 비율 50% 이하
유선, 무선 통신업	전기통신선로 설비임대업의 허용기준일치
국내은행	민간 은행과 지방 은행 허용
투자신탁 회사	증권투자신탁업을 전부 허용
라디오 채널 사용업	외국인 투자 비율은 30% 이하(방송, 유선방송업 미 개방)
위성 방송업	외국인 투자 비율은 30% 이하
뉴스 제공업	외국인 투자 비율은 25% 이하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다. 일부 민감 산업 분야

한국과 중국이 외국직접투자 정책이 차이가 크다. 민감 업종이 다른 업종에 비해 번잡한 특례규정은 없고, 외국직접투자 유치에 대한 한국의 태도가 중국보다 개방적이란 점도 두 나라의 국정과 관련이 크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개발도상국으로 고도성장을 전제로 민족 기업의 성장과 발전 관계 전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지가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에 달려있다. 한국은 아시아는 경제무역 개방국가로써 외국의 투자를 대량으로 유치하면 국가의 내부 경제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¹²⁸⁾.

128) 肖雪, “中韓FTA對雙邊投資的影響研究”, P33~35, “한중FTA 양국 투자에 미치는 영향 연

2) 한·중 투자 현황

(1) 한국의 대(對)중국 투자 현황

가. 투자 항목 및 금액

1992년 한·중 수교 이전 한국(對)중국 투자와 금액이 많지 않다. 1992년 수교 이후 전체 대외 투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두 자릿수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1993년부터 한국 자금의 유입이 크게 늘어 1993, 1994, 1996, 2002, 2007년 사이 한국의 대외투자 1위를 차지했고 자금 액수와 중국 내 신규기업 수는 두 배로 늘었다¹²⁹⁾. 1997년과 2008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세계적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의 대(對) 중국 투자도 영향을 받은 금액과 항목 수가 줄었고 2008년 금융 위기는 한자의 유입이 38억6,000만 달러로 직접 하락했지만 이후 몇 년간의 조정과 회복에 이어 2013년에는 51억6,000만 달러의 고액을 기록했다¹³⁰⁾. 2018년 말 현재 한국의 대외투자 누적액은 3,551억1100만 달러로, 이 가운데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 누계는 576억3,900만 달러로 전체 대외투자금액의 16.23%를 차지해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투자환경과 정책적 한국자본의 영향이 크다¹³¹⁾.

구”, PP.33~35, 2017.

129) 한국수출입은행 <http://www.koreaexim.go.kr>.

130) 한국수출입은행 <http://www.koreaexim.go.kr>.

131) 肖雪, “中韓FTA對雙邊投資的影響”, “한중FTA 양국 투자에 영향연구”, PP.21~22, 2017.

<표3-2> 한국의 대(對)중국 투자 현황

(단위: 건 백 달러,%)

년도	투 자 항 목 수	(新)기업	대 (對) 중국 투자	대외투자	대(對)중국투자 비율
1992	314	171	137,503	1,355,700	10.1
1993	752	382	264,077	1,449,535	18.2
1994	1,299	841	640,829	2,353,589	27.2
1995	1,273	751	137,503	3,231,702	26.2
1996	1,524	741	264,007	4,562,742	20.9
1997	1,147	639	640,829	3,886,736	20.2
1998	601	267	847,986	4,809,120	14.3
1999	868	465	352,772	3,397,816	10.4
2000	1,242	785	767,679	5,356,881	14.3
2001	1,810	1,057	671,878	5,350,032	12.5
2002	2,574	1,396	1,109,501	4,067,231	27.3
2003	3,165	1,685	1,842,688	4,798,949	38.4
2004	4,017	2,149	2,462,770	6,598,411	37.2
2005	4,679	2,264	2,877,278	7,308,234	39.3
2006	4,709	2,293	3,510,952	11,898,191	29.5
2007	4,620	2,113	5,453,984	22,734,335	23.9
2008	3,330	1,305	3,866,837	24,053,680	16.1
2009	2,128	735	2,483,276	20,744,501	11.9
2010	2,300	896	3,663,362	24,679,632	14.8
2011	2,210	826	3,544,168	29,097,828	12.2
2012	1,869	722	4,047,974	28,728,227	14.1
2013	1,882	818	5,163,194	30,495,955	16.9
2014	1,616	701	3,180,112	27,857,507	11.4
2015	1,663	712	2,955,239	30,315,679	9.7
2016	1,613	675	3,299,394	34,986,221	9.4
2017	1,709	577	3,351,235	35,064,340	13.8
2018	1,800	676	5,763,900	35,511,100	16.3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나. 투자 분야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 제조업에 대한 투자액 1위(24억172만 달러)는 제조업 73.3%에 그친 반면 부동산과 금융보험업은 73.3%로 나타난다¹³²⁾. 한국은 두 업종 모두 투자수익률 변동에 따라 2012년 61억4,300만 달러, 금융업종 36억 7,400만 달러 등 경제발전 전망이 밝은 데다 국내 부동산업종이 호황을 누렸다.

132) 한국수출입은행, <http://www.koreaexim.go.kr>.

하지만 2013년과 2014년 부동산 시장이 포화되면서 이 산업에 대한 투자를 눈에 띄게 줄였다. 최근 3년간 금융보험과 소매도매 두 업종이 한국 자본의 각광을 받고 있고 2014년 이후 금융업에 대한 투자는 매년 증가했고 2018년에는 금융보험에도 27억4,200만 달러로 62억3,400만 달러가 늘었다¹³³⁾. 건설광업처럼 투자도 많고 비용과 이익도 많이 드는 업종은 한자의 유입량이 크지 않다. 교육 같은 업종은 국가 정책 개입 등 한국 자본이 개입할 기회가 많지 않아 낮은 투자량을 보여 왔다. 반면 1차 산업은 투자수익률이 낮고 수익주기가 길기 때문에 다른 산업처럼 규모의 경제효과를 낼 수 없고, 금융업만큼 높은 투자수익률도 없고 위험부담도 커 투자가 거의 없다.

(2) 중국의 대(對)한국 투자 현황

가. 투자 항목 및 금액

1992년 양국 수교 전 중국은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 건수가 한 자릿수인 1992년 100만 달러 안팎에 불과했으나 1992년 수교 이후 눈에 띄게 좋아졌고 1993년 처음으로 투자 종목 수가 300%대의 증가를 맞이해 1999년과 2000년 200%가 넘는 사업을 증가를 했다¹³⁴⁾. 자금증면에서 한·중 FTA 협상이 시작된 첫해인 2004년에는 사상 최대인 2,219.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2012년 한·중 FTA 협상이 본격화하면서 2013년 중국 측 투자 신고 건수는 전년의 512건에서 402건으로 21.5% 감소했고, 신고 금액은 7억3,000만 달러에서 2억5,000만 달러로 33.8% 줄었지만, 정확한 투자액은 이전 1억8,600만 달러에서 2억1,000만 달러로 12.6% 늘었다. 13년 말 현재 중국의 대(對)한국투자 신고 건수는 8,446건이고 전체 투자 신고 규모는 49억4,500만 달러로 25억5,400만 달러에 이른다¹³⁵⁾. 2014년 FTA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뒤 최근 몇 년간 FDI 금액은 10억 달러 이상의 호조를 유지하고 있다. 2015년 6월 체결된 양국 간 무역협정으로 대한 투자액 증가세가 두드

133) 한국수출입은행, <http://www.koreaexim.go.kr> .

134) 중국상무부, <http://www.mofcom.gov.cn> .

135) 중국상무부, <http://www.mofcom.gov.cn> .

러진 덕택에 연간 대한 투자액은 작년대비 66.4% 증가한 19억8,000만 달러다¹³⁶⁾.

금융위기나 정치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한 한·중 FDI금액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양국 GDP의 고속성장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다국적 기업과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전망 등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투자환경이 좋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과 한국 투자에 대한 기본 데이터는 상승세를 보이고 재고 하지만 중국의 대외 투자 80%이상이 아시아 지역에 있지만 한국에 투자 지분 2%이상 달성할 수 없다. 한국은 중국투자의 주요 이동국가가 아니며 앞으로 개발의 공간이 많다는 것을 보인다¹³⁷⁾.

나. 투자 분야

1989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이 한국에 직접 투자한 업종별 분포를 보면 중국의 한국 투자는 주로 서비스업과 제조업에 집중돼 있고, 적은 자금이 농, 축, 어, 광업, 수, 전기, 석탄, 건설업에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의 보호정책과 한·중 수교가 본격화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1992년 전 중국의 대한 투자로 농, 축, 어, 광업과 수, 전기, 석탄, 건설업이 항목 수와 금액이 모두 제로(0)였고 1992년 이후 농, 어, 광업과 수, 전기, 석탄, 건설업에 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비중과 투자금액은 미미했다¹³⁸⁾. 투자금액을 보면 1999년 이전까지 투자한 금액의 몇 개 업종을 모두 합하면 1,000달러 미만이고 1990년과 1991년에는 최저치인 10만 달러와 70만 달러로 매우 낮았다. 투자금액과 항목이 작년 대비 크게 늘어난 것은 1993년부터이다. 이 중 농, 축, 어업 최고 투자액은 2011년 5만 1200달러로 작년 대비 2,911% 늘었다¹³⁹⁾. 2001년 이후 중국의 WTO 가입이 국제 환경에 더 많은 적응을 필요로 하는 탓인지 중국의 대한 투자는 업종별로 수일과 금액에서 여러 차례 요동쳤다.

2012년 한·중 자유무역협정 협상 이후 중국의 대한 투자는 업종별로 안정적인 증가추세를 유지했다. 특히 금융업은 2007년 이후 2016년 30억4400만 달러로

136) 한국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ke.go.kr>.

137) 肖雪, “中韓FTA對雙邊投資的影響”, P23, “한중FTA 양국 투자에 영향 연구”, 2017, P.23.

138) 한국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ke.go.kr>.

139) 한국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ke.go.kr>.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이 중 제조업 투자액은 2016년 96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4.6% 증가했고 서비스업은 141억9,000만 달러로 19.6% 증가했다. 이 중 한국의 서비스업 투자비만 10분의 1을 차지했다¹⁴⁰⁾. 2014년 중국의 대(對)한국 투자 업종은 복합리조트, 문화산업, 식품, 의류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2016년과 201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설립되기 전 중국의 대한 투자는 서비스업인 부동산금융업에 집중됐다. 한·중 FTA에 힘입어 문화산업, 전기자동차, 로봇, 관광, 식품, 고급소비재 등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 2016년과 2017년 2년간 중국의 한국 투자 산업은 서비스업에 집중됐다¹⁴¹⁾.

3. FTA의 효과

1) FTA발효 후 한·중 교역

한·중 FTA는 2015년 12월 20일부터 발효하여 발효일에 1차로 관세를 인하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2차 인하하였다. 대다수의 무관세 상품은 10년 내에 될 것이다. 쌍방의 수입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한국세관에 따르면 2014~2018년 양국 간 교역액은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한·중 FTA 발효를 전후 한국의 대(對)중 무역 및 성장률 대비에 따르면, 2015년과 2016년은 중국의 경제 감속, 사드배치, 일부 다른 정치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한중 양국 교역이 현저히 감소했다. 표3-3를 보면 2017년 한·중 무역액이 빠르게 회복되어 수출 무역액이 전년보다 14.2% 증가했다. 2014년 무역액에는 못 미치지만 이미 큰 차이가 없어 수입액은 978억6,000만 달러로 2016년 양국 수교 이후 가장 많은 12.5% 증가했다. 이 같은 상승세에는 한·중 FTA가 계속 작용해 2018년 한국과 중국의 양자 화물 수출입액이 2686억4,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9% 증가했고, 한국의 대(對)중국 무역흑자는 556억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5.8% 급증하는 등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지속해 수출 14.1%, 수입 8.8% 증가 등 양국 간 교역이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양국 교역이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데는 한·중

140) 중국 상무부, <http://www.mofcom.gov.cn>.

141) 한국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ke.go.kr>

FTA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표 3-3> FTA발효 전후 양국무역액 및 성장률

(단위: 억 달러)

년 도	발효 전		발효 후			성장율		
	2014	2015	2016	2017	2018	2016~ 2015	2017~ 2016	2018~ 2017
수 출	1,453.3	1,371.4	1,244.3	1,421.2	1,621	-9.3%	14.2%	14.1%
수 입	900.7	902.4	869.6	978.6	1,064.8	-3.6%	12.5%	8.8%
차 액	552.6	469.0	374.7	442.6	556.8	-20.1%	18.1%	25.8%

출처: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2) 상호보완효과

한·중 FTA 효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관세완화 효과, 둘째, 완충완화 효과, 셋째, 가치사슬(Value Chain) 등이다.

첫째, 관세 철폐 효과는 현행 관세 및 관세 자유화 수준을 유지하고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65% 이상의 관세를 철폐한다. 한국 상품의 79%는 수입액의 77%에 해당하는 관세를 없앨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물량 71%, 전체 관세 66%를 철폐할 계획이다. 결국 양국은 20년 내에 대다수 무역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둘째는 비관세 장벽 철폐와 완화 효과다. 한·중 양국의 경제체제는 한·중 양국의 경제체제로 전환 구축될 거라고 생각한다, 막대한 규모와 지역별 다양성으로 중국의 무역 및 투자에 대한 비관세장벽이 커지고 한·중 FTA를 통해 비관세장벽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셋째는 가치사슬의 활성화다. 한·중 양국이 이룬 분업구조와 가치사슬은 1992년 수교 이후 양국이 함께 발전한 원동력이다. 이에 대해 시행 몇 년 후 이 협정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빠른 편이지만 앞으로 그 효과에 따라 한·중 FTA의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¹⁴²⁾.

IV. 한·중 수출입의 기업 FTA 투자 규정 및 서비스 무역 협정 활용 방안

1. 한·중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장애요인

1) 한·중 무역의 특징

(1) 중국 시장 의존성

한·중 무역의 발전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양국의 무역 성장은 빠를수록 양국 정책의 영향을 받기 쉬워 안정성이 떨어지고 리스크에 취약하지 않다. 1994년 위안화 환율 병선과 새로운 수출환급제 시행으로 1995년 상반기 양국 교역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후 중국 정부가 수출환급세율을 낮추면서 원자재의 국제시장가격이 높아져 1995년 44.9%에서 1996년 17.7% 1999~2012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이 11.6%에서 32.8%로 높아졌다. 특히 한국의 수출은 광대한 중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¹⁴³⁾.

(2) 무역 불균형

이는 주로 중국의 산업구조와 수출품구조의 경화가 초래한 것이다. 중국의 대(對)한국 수출은 많지 않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중국 시장 진입이 확대되고 위안화가 원화 대비 큰 폭으로 절상되면서 무역 불균형이 계속 확대되는 추세다. 이러한 무역 불균형 존재는 한·중 무역의 지속 발전에 주요한 장애요인이다. 한·중은 상품교역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한편 기술교류 협력을 적극 추진해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¹⁴⁴⁾.

142) 孫彤, “中韓FTA的貿易效應研究”, 2018, P.76.

143) 郭昕, “中韓貿易逆差的問題的分析及對策研究”, “한·중무역 불균형 문제에 대한 분석 및 대체 연구”, 2018, PP.46~47.

144) 李春暉, “中美貿易逆差問題研究”, “한·중무역 불균형 문제 연구”, 2018, P.87.

(3) 한·중 경제무역 협력

한·중 양국은 경제무역에서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민간에서도 양국의 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과거 사 문제로 인해 지금까지의 양국 정부의 결정은 제3자의 영향을 받아 어느 정도 양국의 이익에 따라 경제무역에 관한 정책과 결의를 실행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양국 무역 정책 결정의 강력한 집행에 영향을 주어서 양국의 무역의 발전에 불리하다¹⁴⁵⁾.

(4) 첨단 기술 제품 수출

중국의 기술력이 높은 전자제품의 수출도 급증했고 생활용품, 섬유제품 등 초급제품의 수출 감소도 계속됐다. 중국의 대(對)한국 수출은 노동집약적 제품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중국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외자기업들이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 열기를 높이면서 중국 수출품의 과학기술 함량이 높아지고 있다. 이 밖에 한국 산업구조전환과 신기술의 자율성 개발이 최근 갈수록 늦어지고 있어 한국 수출품의 경쟁력 향상을 가로막고 있다. 미래에도 한·중 통상마찰은 계속되겠지만 한·중 경제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저해하지는 않을 것이다¹⁴⁶⁾.

지난 25년 간 맞춤형이 이뤄졌다면 앞으로 25년 동안 질적 성장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지난 25년간 수출, 투자 등 각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뒀지만 양적인 성장에 치중했다. 앞으로 중국 정부가 육성해야 할 서비스산업, 환경산업 내수소비촉진 등의 대(對)중국 비즈니스 모델도 업그레이드돼야 한다. 지난 25년 간 중국은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고 한국은 중국에서 가공무역을 하며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¹⁴⁷⁾.

145) 史耀波, “中韓經濟關係分析與未來合作思考”, “한중 경제관계 및 미래 협력에 대한 연구”, 2019, PP.76~77.

146) 史耀波, “中韓經濟關係分析與未來合作思考”, “한중 경제관계 및 미래 협력에 대한 연구”, 2019, P.49

147) 金永久, “建交后中韓政經關係分析”, “수교 후 한중 경제 및 정치 관계 분석”, 2010, PP.21~23.

2) 한·중FTA 문제점

(1) 전자 및 자동차 산업 도전

중국에서의 전자 정보 산업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개방 시기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개방 정도가 크고 중국 경제에서 가장 빠른 성장속도와 가장 큰 산업규모다. 한국 GDP에서 전자정보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2년 15%로 높아져 한국 경제에 대한 기여율이 30%를 넘어섰다¹⁴⁸⁾. 양국의 전자 정보 산업은 무역액이 매우 크지만 한국은 기술적으로 더욱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휴대전화, 디자인 제조, CDMA 기술은 세계적으로 강하다. 한국의 이런 명백한 경쟁우위는 한·중 자유무역지대가 조성되면 한국의 하이테크 전자정보 제품이 대규모로 중국에 유입되는 데 유리하다. 중국 자본과 기술집약적 제품의 기술 업그레이드와 산업구조 최적화에 불리하며 중국의 전자정보 기업의 역할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¹⁴⁹⁾.

자동차 산업에서 한·중 양국은 모두 세계에서 중요한 자동차 생산지이다. 하지만 중국 자동차 산업은 생산 집중도가 국제 경쟁력에서 한국보다 현저히 뒤처져 있다. 중국 자동차 공업 전체의 기술 수준은 한국과 10년 정도 차이가 난다¹⁵⁰⁾.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기업 규모나 제품기술품질에서 불리한 경쟁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성립되며 관세와 할당하고 자동차 목록 관리와 생산허가증 관리 취소로 인해 한국의 레퍼토리가 중국에 대한 경쟁력을 크게 높이고, 또 중국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의 위상이 강화되면 한국 자동차 업체가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중 무역에서 일부 상품들은 양국에 대해 비교적 큰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데 경쟁성이 상호보완성보다 크다. 이때 양국이 자국 시장을 대규모로 개방하는 것은 자국 산업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노동집약적, 원자재, 가공제품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한·중 간 산업분업에서 낮은 단계의 무역수지를 구축하면 중국의 일부 산업사슬이 손상될 수 있다.

148) 한국은행, <http://www.bok.or.kr>.

149) 文成浩, “中韓FTA對韓國主要產業的影響及對策研究”, “한·중FTA가 한국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 2016, P.66

150)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한·중 자유무역지대가 만들어지면 중국도 금융, 텔레콤 등 민감한 서비스 지역을 개방할 수밖에 없고 보험업, 증권업, 텔레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등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은 한·중 자유무역지대를 만든 뒤에도 식품가공, 농산물, 직물 의류 시장 등 상대적으로 중국에 열세를 보이는 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다. 또 중국의 성장과 함께 고부가가치첨단기술 함량으로 기업들도 노동집약형에서 자본과 기술 집약형으로 바뀌고 있다¹⁵¹⁾.

(2) 무역 불균형

1992년 수교 이후 중국 대(對)한국 계속 무역적자로 돌아섰고 무역적자는 확대되고 있다¹⁵²⁾.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한국의 대중 직접투자를 크게 촉진하고, 투자 확대로 한국의 대(對)중 수출이 늘어날 것이며, 중국 투자기업들이 생산하는 원자재와 부품은 여전히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지만, 생산된 제품은 전부 다 한국으로 되 팔리지 않고 중국을 통해 유럽과 미국 등 다른 나라로 수출함으로써 중국과 유럽과 미국 등의 무역흑자가 커지고 한국과의 무역적자도 커지고 있다¹⁵³⁾.

(3) 무역 적자

한·중 수교 1년 만인 1993년부터 한국의 대(對)중국 무역수지가 2014년까지 20여 년간 매년 흑자를 유지하면서 중국은 한국의 1위 무역 흑자국가가 됐다¹⁵⁴⁾. 무역흑자 전환의 이유는 중국의 고속경제가 한국 기업으로부터 원자재와 자본재를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중 간 기술격차가 유지되는 만큼 이런 무역흑자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1993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의 대(對)중 무역흑자는 계속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었고 2006년에는 209억 달러로 2005년보다 10.2% 줄

151)張帆, “中韓貿易發展進程與中韓自由貿易協定”, 《商業經濟》X8期: “한·중무역발전과정 및 한중FTA”, 《상업경제》X제8기 2016, P.11.

152)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7.8, “한·중 수교 25주년 평가와 시사점”, PP.21~22.

153) KOTRA, “한·중FTA 업종별 효과와 활용 시사점”, 2015.

154)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었다.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보다 줄어든 것이다. 이후 2007년과 2008년에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한국의 대(對)중국 무역흑자 감소는 중국의 경제발전과 정책 변화에 따라 한국의 대(對)중국 수입이 수출보다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¹⁵⁵⁾. 그러나 2009년 한국의 대(對)중국 흑자 규모는 2008년 145억 달러에서 124.4% 증가했다¹⁵⁶⁾. 게다가 한·중 양국의 통계 방법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이 같은 차이는 자국 관세의 시점을 기준으로 집계되기 때문이다. 홍콩을 통한 한·중 간 재수출입 통계의 차이가 한·중 간 무역통계의 차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은 홍콩을 통해 수입하는 중국 상품을 대(對)중국 수출이 아닌 대홍콩 수출로 계상하고, 한국은 홍콩을 통해 수입하는 대륙 상품을 원산지 원칙에 따라 중국에 수입한다. 이에 따라 한국 통계 중 중국에 대한 수출은 적은 반면 한국 측 통계는 흑자액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통계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 중국 홍콩을 통한 한국 수출액을 중국 대 홍콩 수출로 계상해 상대적으로 중국 수출액을 줄였고, 그 결과 중국보다 무역적자가 커진 것이다. 이를 감안할 때 한·중 양국이 홍콩을 통해 상대국에 수출하는 교역액을 각각 상대국에 대한 수출액에 포함시킬 경우 중국의 대한 수출액과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액이 확대돼 중국의 대한 무역적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¹⁵⁷⁾.

한·중 무역 불균형은 두 가지 이유로 꼽힌다.

첫 번째는 동아시아 무역사슬의 변화다. 60년대부터 80년대 동 아시아 주요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과 아시아와 “아시아 넷 마리 용”이 형성돼 무역 가치 사슬이다. 한국과 다른 셋 마리 용들이 이 무역사슬의 중간 고리가 됐다. 이 팔찌의 특징은 일본 무역이 아시아에 대한 무역 흑자 “넷 마리 용”를 비교적 큰 “넷 마리 용”은 미국의 무역 흑자 규모가 더 커지기 때문에 1985년 이후 미국의 압력에 따른 엔화 약세를 미국이다. 일본 무역 적자에 대한 “넷 마리 용”과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 시기 아시아의 넷 마리 용은 자신의 일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으로 넘어갔다. 중국은 미국과 동아시아 무역사슬의 일환이었다. 이를 배경으로 한·중의 동아시아 경제주체들에 대한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

155) 李建林(이건림), “韓中貿易存在的問題及對策研究”, “한·중무역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2016, P.39.

156) 중국 상무부, <http://www.mofcom.gov.cn>.

157) 管禹涵, “FTA框架下中韓貿易關係的前景分析”, 2018, PP.44~46.

됐다. 특히 한국과 대만의 무역 적자 일본의 무역에 대한 이상 적자다. 반면 한국 대(對)미국 무역흑자도 크게 줄었다. 한국 대(對)미국 무역흑자 전부는 중국으로 넘어갔다. 중국이 동아시아와 미국의 무역 고리가 된 것은 중국의 대한 무역 적자 원인 중 하나이다.

둘째는 한·중 수출입 상품의 구조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경제 발전 단계에 따라 자원이 다르고 수출입 상품 구조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¹⁵⁸⁾. 한·중 수교 초기인 1990년대 중반까지 양국 간 교역은 농산물과 광물성 원료 등 섬유원료 석유화학 제품 등 원자재류가 많았다. 한국은 중국으로 섬유, 섬유원료, 석유화학제품, 철강제품, 전자부품 등을 주로 수출한다. 중국에서 농산물, 섬유, 가마, 광물성 연료, 철강제품 등이 주로 수입된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전기전자 업종에서 교역이 확대되면서 2000년대 들어 전자 및 휴대전화 관련 부품과 자동차 부품이 중요한 교역 품목을 차지했다. 양국 간 교역이 원재료 중심구조에서 부품 중심구조로, 노동집약적 제품 중심구조에서 기술집약적 하이테크 제품 중심구조로 전환되었다¹⁵⁹⁾.

2. 대응 방안

1) 무역적자

가. 산업구조

중국의 무역구조는 산업구조에 직접적으로 제약받으며, 산업구조는 그 나라 상품의 국제시장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중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상품은 주로 노동 집약적인 상품, 화공 제품, 과학기술 함량이 비교적 낮은 기계 전자 제품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기계전자제품의 한국 수출 비중이 높아졌지만 한국 상품에 비해 경제적 부가가치는 낮다. 한국의 대(對)중국 무역에서 기계전자제품의

158) 張天行, “中韓FTA對中韓汽車產品貿易的影響及對策研究”, 2014, PP.35~36.

159) 金璟瑄, “中韓自由貿易協定的問題與前景研究”, “한중FTA 문제점 및 전망 연구”, 2018, PP.57~58.

비중이 높아지고 최근 몇 년간 과학기술 함량이 높아졌으며 특히 반도체 패널 등의 우위를 차지하는 품목은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아 한·중 무역적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¹⁶⁰). 한·중 무역 역조의 문제는 주로 한·중 산업의 분업이 다르기 때문에 한·중 산업 간의 차이가 현저하다. 이런 경우에는 산업 구조의 조정을 확대하여 낙후된 생산능력을 제거하고 중국 전체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특히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중국 상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특히 우주기술과 생물공학 등의 분야에서 중국이 기술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이를 산업 우위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내 과학기술 수준을 끌어올려 한국 제품과 국제 경쟁을 벌여야 한다.

나. 중국 대(對)한국의 무역구조

중국의 대(對)한국의 수출입 무역 구조의 조정은 가속해야 한다. 중국 수출 상품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고, 대한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對)한국 수출우위 품목을 유지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시장 인지도를 높여 브랜드 파워를 창출할 수 있다. 철강과 방직업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중국으로의 수출도 늘려야 한다. 한국에 수출하는 품목과 범위는 꾸준히 늘리고, 경제 부가가치 상품의 비중을 높이는 한편, 기존 수출상품의 구조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하이테크 상품과 기술집약형 상품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 중국의 비교우위 산업을 찾아내고, 중국의 기존 상품 교역구조를 분석하고 그 중 우위가 큰 상품을 찾아내 기술 업그레이드를 촉진한다. 예를 들어 중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전자제품의 잠재력을 더 발굴해 핵심 생산력을 키워 브랜드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일부 우위 산업에서도 중국은 다른 나라 상품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국의 강점을 살려 중국의 열세를 보완하고 한국 상품에 대한 무역구조 조정을 지속적으로 가속하여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를 줄이고 무역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

160) 王丹, “中韓貿易逆差原因探析”, 2014, P.87.

다. 중국제품의 구매

한국 기업은 중국에 공장을 투자한 뒤 중국의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 가공 제조업을 수출하고, 원자재와 부품은 한국에서 수입해 대(對)중국 수출을 이끌었지만 한국으로의 수출 물량은 드물었다. 그래서 무역적자를 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기계설비소재부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 상품부품을 구매하도록 적극 유도해 중국 본토에 대한 한국 기업의 구매율을 높이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 중국 기업은 자신의 제품의 과학 기술 수준을 높이고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기술 혁신을 강화하며 한국 동종 업체와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며 고객의 요구에 따라 생산에 적합한 부품과 기계 설비를 제공해야 한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 내 구매를 늘리면 한국에서 수입하는 운송원가와 관세원가를 줄이는 동시에 시간비용도 크게 줄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중국 정부는 합리적인 무역세제 정책을 설정할 수 있다. 가공 무역 방식은 다른 무역 방식에 비해 세수 혜택이 더 많기 때문에 중국 무역 방식은 가공 무역을 위주로 하며 중국 수출 상품 중의 국산화 성분은 세수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중국 정부는 가공 무역이라는 무역 방식에서 과도한 경사를 피해야 한다¹⁶¹⁾.

2) 전자 및 자동차 산업

가. 전자 산업

중국 전자 산업의 문제에 대한 대안은 주로 3가지가 있다.

첫째는 중국정부가 전자 산업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중국 전자 제품 무역이 무역교역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전자정보산업은 국민경제 발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중시해야 한다. 비록 최근 몇 년 동안 국제산업이 이전됨에 따라 중국은 많은 전자제품의 가공을 접수하고, 산업구조가 업그레이드

161) 王丹, “中韓貿易逆差原因探析”, 2014, PP.71~73.

이드된다. 중국 전자정보산업은 발전이 양호했지만 산업정책으로 볼 때 중국의 전자정보산업에 대한 정책은 아직 완전하지 못해서 더욱 개선해야 한다. 한국은 중국에 비해 전자산업 발전을 더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전자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양호한 기술 환경을 창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법률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국가과학기술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과학기술혁신특별법 등이 공포되었다. 한국 전자산업의 성공은 정부가 전자산업의 혁신을 장려하고 장려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중국은 한국의 성공경험을 벤치마킹하여 조세, 재정, 인재 등의 측면에서 더욱 합리적인 전자산업 규제정책을 수립하고 중국 전자산업의 발전 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둘째는 기술 혁신 능력의 향상을 촉진해야한다. 연구개발 투자는 전자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제 중국의 전자산업 발전은 증산방식을 전환해 기존의 성장에서 내수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변화를 위해서는 투입구조의 변화부터 시작해서 전자제품 연구와 개발투자를 꾸준히 늘려야 한다. 가공무역을 위주로 하는 중국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제 전자산업 사슬에 처해 있고, 중국 수출의 대부분 전자제품은 부가가치가 낮고 기술 함량도 낮아 국제 경쟁에서 밀리는 가공무역의 변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국의 전자산업 사슬 연장 과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 중국 전자제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한국 전자산업 관련 경험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혁신적인 체계를 세워야한다.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한 전자제품 중전자관 및 반도체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전자관 및 반도체 분야의 핵심 기술에 대한 파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기술 부족을 뚫고 전자산업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집적회로 분야의 고급 인력에게 양질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등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구축해야 한다. 또 고급인력에 대한 제도적 편의를 제공하고 기술인재에 대한 인증 메커니즘을 더욱 정비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밖에 중국과 한국의 고부가가치 전자제품 기술경쟁 격차를 줄이려면 기업 주도의 혁신체제 구축, 시장진출, 기업주도, 환경촉진,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 중국 전자산업 기술혁신 운영체제 구축, 전자산업 기술혁신에 대한 통합, 집적회로신형 전자소자 소프트웨어기술컴퓨터 및 전자정보소재 기술 등에 집중하는 연구개발을 필요하다.

나. 자동차 산업

중국 자동차 산업의 문제 해결하자면 대안이 세 가지를 필요하다.

첫째는 수입제한보호정책을 강화해야한다. 한국에서 자동차 산업이 발전 초기에 정부는 엄격한 수입제한정책을 실행하였다. 1962년 자동차업보호법을 제정해 1986년 해외수입이 금지될 때까지 자동차산업이 발달하자 조건부 자동차시장 개방에 나서 1995년 10년간 수입관세를 60%에서 8%로 낮췄다¹⁶²⁾. 중국도 중국 자동차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자동차 수입을 제한해 왔으며 WTO 가입 이후 관세를 낮춰 왔지만 한국보다는 여전히 높다. 단순히 산업 정책에만 의존해 약자산업 보호를 성공시키려면 약자산업 보호를 위해 어느 단계까지 계획하고 그 기간에 구체적인 보호계획을 세우고 외부에서 어떤 보호책을 제공할 것인지에 따라 기업인들은 시장이 개방된 후 정부 보호 없이 글로벌 시장 경쟁자들을 어떻게 상대해 국내시장으로의 탈출을 서두를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한국과의 FTA 협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고 양국의 상황에 따라 한국의 상대적 열위 산업에 대한 적절한 양보를 통해 한국 자동차 산업의 단계적 계획적 무역 자유화에 동의함으로써 중국 자동차 산업의 무역 자유화를 위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둘째는 수출 장려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은 이처럼 급성장한 것은 정부의 수출 정책 덕분이다. 1974년 정부가 장기 자동차산업 진흥계획을 발표하고 수출 목표를 정했고 3년 뒤엔 수출전략업종으로 지정해 자동차 수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혜택과 수출보조금을 제시했다. 한국의 자동차 수출 주도적 경영전략이 성공적이어서 한국은 규모효과의 희생 없이 기술개선과 기술 이전을 자극해 생산원가를 낮추고 국제경쟁력을 높였음이 입증됐다. 중국은 2004년 자동차산업정책을 발표했다. 2006년 정부가 자동차 업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정책을 실행을 했다. 자동차제품의 수출을 늘리고 수출신용보험의 역할을 하며 자동차 수출업체에 자동차 수출기업과 운수업을 추진할 전략적인 제후를 보장했다. 운송비 절감, 수출시간 단축, 정보서비스 제공, 외국 기업과의 국제 정보교류 무역장벽 해소 등 공공개발의 플랫폼을 구축했다.

162) 한국은행, <http://www.bok.or.kr> .

셋째는 기업이 그룹화 발전을 시켜야 한다. 자동차 수출 건강하려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고 생산 집중도를 높이며 그룹화 하여 발전해야 한다. 한국 자동차 공업의 발전 초창기에 정부는 강력한 개입과 통제를 통해 처음에는 많은 소형 자동차 제조 공장을 자동차 그룹으로 개편하고 연합하여 인력, 재력, 물력을 집중하여 각 그룹에 완전한 그룹화 생산능력과 자체 연구개발 능력을 제공했다. 결국은 규모의 경제 형성을 촉진하여 자동차 기업이 외국의 대형 자동차 생산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였다.

3) 무역 불균형

현재, 한·중 양국은 경제 발전을 하고 있다. 수준이 다르면 국제 분업과 산업 분업에서 위치가 다르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발전 수준이 다르면 자원의 소질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노동력과 자연자원, 기술력 등에서 상호보완성이 높다. 무역 협정 체결로 산업 간 우위 보완, 우위 자원의 상호 이동이 가능해져 양국 간 교역이 강화된다.

한·중 FTA의 체결을 해서 양국의 관세와 무역 장벽이 감소하여 무역 원가가 대폭 인하되었다. 많은 종류의 제품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무역 기회. 양국 간 무역의 성장은 거시경제의 성장을 촉진하고 양국 주민의 사회복지를 향상시킬 것이다. 자유무역은 양국의 강점을 더 잘 살리고 국제적 분업도 전문화할 수 있다. 또 무역규모 확대는 생산규모 확대로 이어져 생산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양국 산업구조를 최적화하며,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¹⁶³⁾.

한·중 FTA 협정에 따라 해당 세목 제품의 90% 이상이 20년 과도기를 거쳐 0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한·중 FTA는 한국의 프리미엄 제품 등 대(對)중국 수출을 더욱 견인하고, 중국은 한국에 대한 기계전자류 수출 확대, 노동집약적 제품 등 상호 보완성을 발휘해 한중 경제에 긍정적인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 자기무역구역을 건설함에 따라, 중한의 무역액은 더욱 확대되고, 무역액도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증가는 중국의 경제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중국 산

163) 孫彤, “中韓FTA的貿易效應研究”, 2018, P.66.

업의 혁신을 촉진하며, 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실현할 것이다. 수출품의 품질을 높여 한국에 대한 무역수출을 늘리고, 한국에 대한 무역 불균형을 줄이는 방식이다.

3. 서비스 무역 협정 및 투자 규정 대응 방안

한·중 양국 기업들이 FTA 협정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FTA를 충분히 알아야 한다. 기업들이 FTA 규정을 통해 손해를 피하고 더 큰 이익을 얻고 더 길게 가려면 다음 두 가지를 해야 한다.

첫째, FTA 규정에 대해 숙지해야 한다. 수출업체나 수입업체나 FTA 혜택에 대한 이용률이 높지 않은 가운데 수출업체 전체 이용률은 10% 안팎(CEPA¹⁶⁴) 이용률은 10%를 넘지 않는다¹⁶⁵).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FTA의 특혜 관세정책에 대한 이해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수출입 기업의 경우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높은 수출입액은 기업이 더 많은 정책 난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더 기업 발전에 유리하며 소형 수출입 기업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통해 원가를 절감한다. 즉 이 부분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부서의 기술, 인재 등의 자원. 수출기업이 FTA 혜택을 보는 관세는 수출품이 FTA 발효 품목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업이 상세한 정보를 조회해 원산지 특혜를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입업체도 FTA 여부를 조회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 수출업자에게 우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 FTA 특혜 관세 혜택을 주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수입업체나 수출업체나 FTA의 특혜관세 정책을 스스로 알아야만 FTA의 특혜관세 정책을 더 잘 누릴 수 있고 세계혜택을 얻어 이익을 늘릴 수 있다.

둘째, 기업은 기업의 시장 다양화를 촉진해야 한다. 수출입 기업들은 시장 관도 변화에 대응해 시장 다양화 전략을 구사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한·중 서비스 무역에서 우대 정책은 관세 정책뿐만 아니라 국민 대우, 자연

164)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약자이다. 명칭은 시장 개방보다는 경제협력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등 실제 내용은 자유무역협정(FTA)과 큰 차이가 없다.(지식백과).

165) 중국상무부, <http://www.mofcom.gov.cn>,

인, 이동 제도 등도 포함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혜택을 선택할 때 상대적으로 가장 혜택을 주는 정책을 택해야 한다, 하지만 FTA 혜택이 가장 큰 혜택을 주는 반면 민감 품목과 특산품은 세금 인하 폭이 다른 혜택보다 낮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시장조사 인재시장 개척자, 국제협상 인재 등 전문 인력을 포함한 다원화 전략이 우선이다. 하지만 이런 인재들이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돈 내고 키우는 것도 꺼려하는 기업들이 고비용으로 키운 인재들이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될 것을 우려하는 바람에 이직하면 기업 이익의 충돌이 빚어질 수 있다. 실제로 외부에서 전문팀을 영입할 경우 기업의 소요비용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 역시 스스로 육성할지 아니면 외부에서 영입할지를 놓고 갈등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다양화가 기업의 되돌릴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FTA를 잘 아는 팀을 육성해야 하고 임원진을 외부에서 초빙하여 팀의 성장을 이끌 수 있으며 이후 인력 구조를 고려하여 인재를 붙잡는 데에 도움이 된다.

1) 서비스 무역 협정

(1) FTA 활용

FTA는 한국과 중국의 서비스 무역을 개선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최근 수많은 무역전쟁은 두 곳 다 망할 뿐이며 양국 관련 산업의 자기계발에 도움이 안 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따라서 중국이나 한국 모두 시장에서의 위치를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하고 FTA에 관련 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국은 중국 서비스 제품에 대한 무역 차별 원칙을 없애야 한다. 한·중은 이웃나라이고 비슷하면서도 독특한 인문지리적 환경을 갖고 있어 시장 잠재력이 크다. FTA 체결 및 발효를 통한 학술 및 연구 협력 교류, 한국의 외자 유치, 적극적인 교류, 수많은 서비스 산업의 혁신과 창조를 추진할 수 있다. 서로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서비스 무역 경쟁력 수준을 높여 서비스 무역 분야에서 모두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FTA를 적극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경제무역 및 인적 왕래가 더욱 긴밀해지고 상업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

어날 수밖에 없고 운송, 중개, 조사, 관광서비스, 보험, 통신 서비스 등이 모두 새로운 서비스 부문으로 발전할 것이다. 양국의 서비스 교역은 시장하고 인위적인 간섭은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따라서 한·중 양측은 서비스수지 적자의 원인을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하되 시기적절하게 올바른 수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양국의 효력이며 무역전쟁과 마찰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 아니라 전략적 차원에서 경협을 바로 봐야 장기적으로 한·중 양국 경제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2) 서비스 무역 규모 및 비중의 확대

가. 서비스산업 발전에 대한 활력을 더해야 한다.

서비스교역 확대의 핵심은 독과점을 타파하고 독점업종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비국유적 자본이나 비현지적 요인에 대한 불평등을 없애는 것이다. 이 밖에 비 기본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민간기업 등 다양한 시장주체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나쁜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 간 서비스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장려하고 요소 자원의 배치를 최적화하며 서비스의 질과 효율을 높이고 서비스 무역의 규모를 확장한다. 마지막으로 더 많은 기업이 국제경쟁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나. 서비스업체제에 대한 개혁

첫째는 사회자본이 서비스업에 진입하는 각종 유무형의 장벽을 허물어 서비스 분야의 대등한 경쟁을 본격화하는 것이다. 중국 접근시장의 부정적 목록이 보완되면서 사회자본의 서비스업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실정을 보면 사회자본이 서비스업에 진출하고 서비스 분야에서 평등한 경쟁을 하는 등 체제 장애에 직면해 있다. 예를 들어 체제 내외부의 인재 등 정책 차이로 인해 민영교육, 의료 등 서비스업의 활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은 것이 한 예다. 불합리한 정책체제가 사회자본에 미치는 속박을 깨고 서비스 시장에서 사회자본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내외 서비스업 기업의 정책평등을 서둘러야 한다.

둘째는 산업정책 전환으로 서비스업 시장화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시장경제 체제가 수립됨에 따라, 산업정책과 경제의 구조전환 추세에 맞지 않는 모순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불공평한 경쟁과 혁신 억제 등의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통신의 경우 중국 통신의 기초적인 원가가 어떤 선진국보다 1~2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 원인은 자원부외에도 산업정책과 직결된 행정적 독점으로 인한 경쟁 부족, 비효율과도 직결된다. 서비스업의 시장화 개혁을 심화시키려면 경쟁정책의 기초적 입지 강화와 이를 통한 산업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가능한 빨리 《반독점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경쟁정책 및 그에 상응하는 공정경쟁심사제도, 반행정독점제도를 반독점법에 포함시키고, 산업보조금과 지원사업을 대폭 축소하며, 경쟁정책을 바탕으로 산업정책 전환을 가속화하고, 경쟁정책으로 산업정책 및 관련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율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산업 시장화 개혁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기술혁명의 추진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이다. 5G, 인공지능 등 신기술 구동 하에서 디지털 경제 등은 새로운 업태를 가져와 산업 변혁과 사회 변혁을 촉진할 것이다

다. 관리체제의 최적화

자유무역지대의 실제 상황을 보면 자유무역의 주요 장애는 상품무역 영역 내의 관세가 아니라 서비스 무역과 투자 영역 내의 관리, 비관세 장벽 및 시장의 개방도이다. 여전히 상품교역을 겨냥한 부정적 리스트를 상당수 관리하고 있어 서비스무역의 선행시도가 먹히지 않고 있다.

미래 서비스 무역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려면, 첫째는 서비스 무역 발전 촉진 방안과 구체적인 지지 정책을 시급히 연구하여 FTA 지역의 서비스업 시장 개방 및 서비스 무역 방면에서 중대한 제도 혁신을 추진해야 하며 서비스 무역을 중점적으로 하는 더욱 높은 표준의 경제 무역 규칙에 선행하여 먼저 시행해야 한다.

둘째는 서비스 무역 발전의 정책이다. 서비스무역과 상품무역은 각기 다른 속

성과 특징을 갖고 있다. 서비스무역업체는 자산이 적은 특성을 갖고 있어 은행 대출을 받을 때 필수적인 자산담보 능력과 보증이 부족한 만큼 금융기관이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적응적인 대출과 자금지원 정책을 펴도록 독려해야 한다.

셋째는 FTA 지역 내의 인원 이동의 편리화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 서비스 무역의 중요한 형태 중 하나는 인적 교류다. 예를 들어 국제직업자격의 상호인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국제 전문서비스업 인재들이 FTA 지역에서 창업을 장려하며 전공 교류를 통해 점차 인문교류를 풀어나갈 수 있다.

라. 서비스 무역 규모

서비스 교역 규모를 늘려야 한다. 서비스 무역 시장의 주체가 확대되고 서비스 무역의 개방이 확대되며 비로소 대외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서비스 무역을 촉진하는 관리 플랫폼이 건설될 것이다.

(3) 서비스 무역 개방

세계적 경제를 수반하는 발걸음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 제고는 글로벌 기업과 대형 용자 부문의 주요 목표다. 중국은 글로벌 경제에 발맞춰 시장 접근과 대외 개방에 힘을 실어 서비스업 발전과 개혁에 좋은 정책을 펴야 한다. 금융보험전기통신 등 서비스업은 시장접근제도를 완화하고 소프트웨어 개발물류 서비스 등에서 외자 유치에 충분히 해 중국 복업을 더 높은 수준으로 촉진해야 한다. 서비스 무역 시장을 개방하고 다국적 기업 본사, 연구개발 센터, 디자인 센터와 마케팅 센터를 중국에 투자하도록 끌어들이는다.

국가 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단번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발전 속에서 서서히 성장해 가는 것이다. 중국은 서비스 무역 개방도가 서비스 수출액에 유리하도록 보호와 개방이 원칙으로 결합돼야 한다. 하지만 개방 수준이 낮은 배경에는 정부 규제가 심하고 독과점적인 업종도 많다. 보험, 전기통신 등 업종별 진입기준이 높아 외국인 비중이 낮기 때문에 서비스업의 개방도가 높이는 것이 급선무다. 또 중국 서비스 무역에 대한 FDI의 수출 영향은 크지 않지만 FDI는 많은 실

증연구에서 FDI가 유입의 주요 고리로 확인됐지만 서비스업에서는 맞춤형 정책이 많지 않다. 따라서 지향적인 측면에서는 정책을 통해 서비스업에 FDI를 도입해 외자를 활용한 서비스 무역을 활성화해야 한다.

2) 투자 규정

(1) 투자의 타당성

지난 몇 년간 중국 기업들은 한국 투자에 몇 차례 큰 투자를 했다. 상하이차가 쌍용차를 인수한 것도 그런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이런 투자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이는 중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¹⁶⁶⁾. 기업의 투자에 앞서 현지 투자규칙과 현지 관련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현지 투자환경을 점검하는 것 외에 FTA 협정을 활용해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실패한 투자기업을 교훈삼아 이러한 경영 전략과 성공의 방법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참고해야 하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2) 투자 모델

현재 중국 기업은 주로 매수를 통해 겸임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모델로 한국에 직접 투자한다. 이런 인수합병 모델은 난이도가 높고 성공률이 낮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깊이와 폭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 패턴을 계속 모색하고 다양한 분야 투자 및 지분참여 등 다양한 투자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대규모 투자는 현지 정부 및 정부로부터 쉽게 경과를 일으킬 수 있다. 기업의 경계심을 다투어 처음 시작할 때는 소자본으로 시작해 점차 확대하는 게 좋다.

상하이차와 징둥광(京東方)은 모두 기술 취득하는 관심만 있고 기업의 성장을 무시해 보니 피인수 기업의 경영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반면 거창하게 한국

166) 金燕, “如何利用自貿協定對韓投資”, 2016, P.79.

을 인수한 Actoz soft는 인수 규모가 작아 지적재산권 외에 한국 시장에서 피인수된 업체의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성공사례로 꼽힌다.

(3) 투자 환경 및 혜택

중국·일본·말레이시아·싱가포르·대만·중국과 홍콩 지역 7개 아시아 국가 중 한국 투자 환경을 종합 2위에 이어 대륙에서 불고 있다¹⁶⁷⁾. 한국은 시장잠재력, 인프라(통신수력), 세제, 정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 등에 적극적이다.

한국의 투자 절차는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신청부터 등록까지 7일이면 된다. 우선 기업이 외환거래가 있는 한국은행이나 대한무역을 해야 한다. 투자진흥공사 투자지원센터(국내 외국인투자 신고 최소 10만 달러 이상)가 신청서를 냈다. 이 경우 기업은 자본금을 계좌 개설은행에 송금하고 등록소에 등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한국 세무기관에 세무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이 완료된 후, 기업은 기업 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은 관세 혜택 외에 다른 세무 분야에서도 중국 투자 기업에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 정책은 투자액이 500만 달러 이하가 아닌 기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한국의 평균 세율은 19.8%다. 한국의 기업소득세는 매출액 2000만 달러 이상 기업세율 22%, 20만2000만 달러 미만 기업 20%, 20만 달러 미만 기업 10% 등 3단계로 구분돼 있다¹⁶⁸⁾.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10%로 현금 지원 정책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투자기업은 투자금액보다 5%포인트 이상 비싸게 받을 수 있다. 투자 기업에 토지 임대료 정책, 직원 교육비 지원 등의 혜택도 준다. 따라서 투자 환경을 분석하며 투자 혜택 정책을 잘 알아내고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4) 위험회피

어떻게 투자 위험을 피할 수 있는지에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기업은 투자 전 조사와 기획을 잘해야 한다. 기업은 투자 전 환경, 용역

16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

16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

등에 대한 법률 규정, 기업 소재지에 대한 특혜 여부 등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둘째, 기업은 새로운 회사 설립과 한국회사 인수, 지주투자 및 지분참여 등 투자구조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선택해야 한다. 현지화 경영을 통해 기업의 투자 위험을 해소하는 것이 최선이다. FTA는 분쟁해결방식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경제무역과 투자분쟁의 해결방식은 해당되지 않는다. 투자기업과 목표국 정부 부처 간 투자분쟁이 생기면 해당 기관(한국에서는 사법부 국제법률사무사, 중국에서는 상무부 조약법률사)에 먼저 신청해 행정복의로 해결해야 한다. 40일 이내에 투자분규가 행정복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기업은 중재와 사법절차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중재 신청은 국제투자분쟁센터에 하면 된다.

(5) 기업 이미지

중국 기업은 한국에서 공익 활동, 기업책임 홍보 행사 등 대(對)중국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편견에 의존해 중국 기업을 가려내기보다는 중국 대외 투자 기업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대로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 대외 투자 기업들이 현지 환경에 통합하여 한국 경제 구조의 한 부분이 되어 현지 주민들과 거리감을 없애도록 해야 한다.

(6) 글로벌 인재 유치

인재 자원은 기업의 핵심이다. 하지만 지금 중국에 부족한 것은 바로 글로벌 경영 능력을 갖춘 인력으로 글로벌 경영 인재이다. 중국 기업들은 현실과 결합해 인재 비축을 통해 건전한 인재의 성장 통로를 마련하고 인재 유치선발용인의 메커니즘을 보완해야 한다. 끊임없이 인재 국제화를 추진하여 글로벌 경영인재의 양성 상황의 형성 목표로 노력해야 한다.

IV. 결론

한·중 FTA는 2015년 12월 20일 발효돼 2016년 2년간 관세율이 감소했지만 2016년 한국의 대(對)중국 수입 주요 품목 중 전기기계제품, 금속제품, 화학제품, 섬유제품, 의료기기 등은 수입량이 적거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하지만 2017년 제1분기 중국의 산업생산 호조와 세계 경제 호조, 국제유가 상승으로 한·중 교역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6년 한국 기업의 한·중 FTA 활용률은 평균 43%로 낮은 수치다. 관세 혜택이 적은 데다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활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2016년 대(對)중 수입 때 FTA 활용률은 58%였지만 대(對)중 수출에서 34%를 넘기는 데 그쳤다¹⁶⁹⁾. 한·미 FTA가 발효된 데 비해 한미 FTA의 수출 이용률은 76%에 이르는 데 비해 한·중 FTA 이용률 수치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다¹⁷⁰⁾. 특히 한국 중소기업의 수출 규모가 작아 관세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 때문에 복잡한 절차를 밟기보다는 기존의 수출 방식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 한·중 FTA는 시작한지 몇 년 밖에 안 되고 양국 간 FTA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국 FTA 활용 지원기구의 종류를 늘리고 접근방법을 늘려야 한다. 이에 따라 한·중 FTA 규정과 이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데 대한 지원과 의견이 필요하다.

2017년 중국 정부는 대외 개방 방침을 발표했다. 7개 자유무역지대를 신설하고 무역 단일창구 설치 등 국제무역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자유무역지대는 대부분 중국 중서부와 동북지역에 위치해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발전을 이끌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해외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 확대와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공약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이 같은 대외개방 정책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은 향후 중국의 대외정책 추진에 실효성이 있다는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중국이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한국의 협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한·중 FTA는 중국이 체결한 FTA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중국에서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준이 제시됐다. 중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향후 국제정치적

169) 중국상무부, www.mofcom.gov.cn.

170) 중국상무부, www.mofcom.gov.cn.

영향력 그리고 한·중·일 FTA, RCEP 등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양국의 경제협력은 서로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국은 북한과 외교경제협력 관계를 맺고 있고 있다. 한국과도 경제 문화적 협력을 맺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한국과 북한의 새로운 변화는 앞으로 3국이 더욱 긴밀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중국은 동아시아 세력 강화를 위해 한국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은 중국과의 긴밀한 경제 협력도 필요로 한다. 그런 점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FTA같은 역내 협력과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에서의 한·중 양국 간 협력 강화는 동아시아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중국과 한국은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협력도 병행해야 한다. 또 고도의 개방과 양국의 경제자유의 환경개선이라는 두 나라의 경제협력을 더 심화시켜야 양국 수출입 기업들이 무역거래가 더 많아지고 양국의 경제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된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 정부가 개방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적극 활동해 동아시아 모든 나라의 공동 번영의 틀을 만들 수 있다.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 기민경, 제현정, “한·중FTA 1주년평가와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6,
- 권혁재, “新보호주의의확산과대”, 삼성경제연구소,2013.
- 김재홍, “한·중 경제관계 중장기 변화 추세와 과제”, KOTRA, 2017.
- 강승관,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상 동종성에 관한 소고”, 2009.
- 김영희, “동아시아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 2005.
- 김옥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정치 경제적 함의: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을 중심으로”, 2015.
- 기획재정부, “한·중 수교20주년 경제성과 및 전망”, 2012.
- 마창환, “FTA이해와 활용”, 기획재정부FTA국내대책본부, 2010.
- 맹하, “한·중무역구조의 특징과 품목별 경쟁력분석”, 2013.
- 박변순, “한·중FTA의 의의와 주요쟁점”, 삼성경제연구소, 2011.
- 박진우,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 의미와 쟁점”한국무역협회, 2018.
- 송일호, 이계영, “중국의 평화적 부상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연구”A study of Chinese Peaceful Rise and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2012.
- 임설, “한·중 무역 불균형의 구조적 원인과 개선과제” A Study on the Korea-China Trade Imbalance-structural Causes and Policy Issues, 2015.
- 이송주, “미·중경쟁과 동아시아 경제협력: 통상정책을 중심으로”2012.
- 오옥영, “한·중 무역장벽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Trade Barriers and Improvement between S-korea and China, 2012.
- 오경수, “중국 보호무역조치 확대 동향과 한국산업의 영향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16.
- 이태환, “중국 정세 전망과 한중관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2017.
- 오선영, “한국 서비스 무역의 문제점 및 대책 연구”2019.
- 안병인, “한·중FTA의 경제적효과와 추진과제에 대한 연구”2008.
- 조우균, “한·중FTA의 경제효과와 추진에 관한 연구”A research on economic ef

fects and promotion of a Korea-China FTA, 2009.

전국경제인연합회, “한·중 자유무역협정 진전 및 계획”, 2012.

장상식, “미국 실행정부의 통상정책방향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한국무역 협회, 2016.

장진민, “한·중FTA체결 전망에 대한 소고”(A review on the prospect of the FTA between China and Korea, “한용경상연구”,2011.

조문희, “신보호무역주의 하에서의 비관세조치”, 대외경제정책 연구소(KIEP), 2017.

채미정,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한중FTA의 향후과제 및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2014.

한중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한·중 수교25주년 평가와 시사점” 2017.

한광수, “한·중경제력의 전망과 과제”2002, 3.23.

한국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한·중 수교 25주년평가와 시사점”, 2005.

환신강, “중국의 FTA체결이 FDI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5.

한국무역협회, “2017년 중국의 무역 특징 및 2018년 전망”, 2018.

“한·중자유무역협정에 대한 50개 질문”2015.

“보호무역주의 현황 및 우리 수출에의 영향”, 한국은행, 2016.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 2015.

WTO , “세계 무역 데이터 및 전망”, 2018.

2. 외국 문헌

李鵬飛, “中韓建交20周年的發展回顧與展望”, 2013.

魯樂, “基于貿易便利化的中韓FTA建立對雙邊貿易影響研究”, 2017.

金民國, “中韓FTA對兩國貿易影響的實証研究”, 2018.

孔相宜, “中韓FTA的貿易影響效應及其對构建中日韓FTA的啓示”, 2019.

姚戰旗, “服務業真實開放度的提升對我國服務行業競爭力的影響”, 2018.

金璟瑯, “中韓自由貿易協定的問題與前景研究”, 2018.

許會會, “中韓FTA建立對中韓電子產品貿易的影響”, 2016.

李眞英, “中韓汽車產業發展對中韓FTA啓示”, 2013.

張天行, “中韓FTA對中韓汽車產品貿易的影響及對策研究”, 2014.

文浩成, “中韓FTA對中韓主要產業的影響及對策研究”, 2016.

- 張丹，“FTA背景下中韓跨境電子商務比較分析”，2017.
- 王健，“新區域主義視角下中韓組建自貿區的動因分析”，2016.
- 匡增杰，“全球區域經濟一體化新趨勢與中國的FTA策略選擇”，2013.
- 仲地鋒，“中韓自由貿易協定與東亞經濟一體化”，《人民論壇》，2016.
- 蔣海曦，“歷史與現狀：中韓自由貿易關係的優劣勢問題”，
“Journal of Sichuan University-國際經濟研究”，2016.
- 李楊，碼偉杰，黃艷希，“中韓自由貿易協定的影響效應研究”，《東北亞論壇》，2015.
- 綦曉情，“中韓自由貿易區創建的現實結構與經貿效應分析”，2014.
- 張驍，楊忠，“國際直接投資理論的發展脈絡及最新進展”，2005.
- 李炳輝，“中韓FTA外商直接投資論的預期效應”，2012.
- 楊天晶，“中韓經貿關係和建立雙邊FTA的可行性研究”，2013.
- 閔岩，“中韓FTA預期經濟效應研究”，2014.
- 劉嵐，“中印國際服務貿易競爭力比較研究”企業經濟，2012年10期，2012.
- 趙景峰，“中國服務貿易：總量和結構分析”世界經濟，2006年8期，2006.
- 林嵐，“中國生產性服務貿易研究”，2009.
- 付華，周升起，“貿易便利化與中國出口貿易：基於引力模型的分析”，商業研究，2014年11期，2014.
- 董佳祺，“中韓雙邊服務貿易發展及競爭力比較研究”，2019.
- 西政大，“中國·東盟自由貿易協定，服務貿易協定研究”，2010.
- 黃麗充，“中國外商投資產業指導目錄問題研究”，2014.
- 王德華，“中韓外國直接投資准入法研究”，2013.
- 肖雪，“中韓FTA對雙邊投資的影響”，2017，
- 曹亮，張亮，廖戰海，“中韓FTA兩國貿易結構的影響研究”，2016.
- 孫彤，“中韓FTA的貿易效應研究”，2018.
- 李婷婷，“貿易摩擦和韓日關係”，2019.
- 郭昕，“中韓貿易逆差的問題的分析及對策研究”，2018.
- 李春暉，“中美貿易逆差問題研究”，2018.
- 史耀波，“中韓經濟合作關係與未來合作思考”，2019.

- 金永久, “建交后中韓政經關係分析”, 2010.
- 李建林, “中韓貿易存在的問題及對策研究”, 2016.
- 管禹函, “FTA框架下中韓貿易關係的前景分析”. 2018.
- 金燕, “如何利用自貿協定對韓投資”, 2016.
- 楊平燮, “中韓FTA：爲經濟發展” 國際稅收X2期, 2016.
- 張帆, “中韓貿易發展進程与中韓自由貿易協定”, 《商業經濟》X第8期, 2016.
- 學術論壇, “服務業開放視角看中國的世界价值”, 2018.
- Hymer, S.H, “the international operations of National Firms, Cambridge: MIT Press”, 1976.
- Hitt, M.A, Hoskisson P.E and H.Kim,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Effect on Innovation and Firm Performance in Product-Diversified Firm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1997.
- James Lee, David Walters, “International trade in construction, design, and engineering services”, 1989.
- Kolomiets Anastasia, “The Impact of WTO Entry on the Russian Economy”, 2013.
- M. Sornarajah, “The International Law on Foreign Invest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Prasgabh k Reddy, Gaurav Gairola, “India’s Services Boom—the Need for Balanced Growth”. Working paper Series, 2002.
- Zuraw, “A Study on the Trade Policy of Internal Services in Europe” 2015.

4. 사이트

- 中國:中國自由貿易區服務网, <http://fta.mofcom.gov.cn>
- 中國: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网, <http://www.mofcom.gov.cn>
- 中國:中國海關信息网, <https://www.qgtong.com/>
- 한국:한중FTA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fta.go.kr>
- 한국: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 한국:한국무역협화통계, <http://stat.kita.net>
- 한국관세청, <http://www.customs.go.kr>
- 통상교섭본부, <http://www.mofa.go.kr>
- 한국은행, <http://www.bok.or.kr>

한국수출입은행, <http://www.koreaexim.go.kr>

한국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ke.go.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

ABSTRACT

A Study on the Efficient utilization through FTA Investment Regulations and Service Trade Agreement of Import and Export Companies in Korea and China

XUHUI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Economic Globalization is an inevitable trend of global development, and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can accelerate the process and is an essential course of Globalization. Integration drives economic growth by expanding member countries' markets and increasing resource utilization. In response, countries around the world began bilateral or multilateral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using tariff reductions, trade incentives, and the creation of trade zones to enhance economic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and drastically cut trade costs. As the 2008 financial crisis worsened the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to some extent, countries around the world began to seek new ways to drive their economic growth in response to various negative effects. The establishment of free trade zones has become a priority for some countries, and has become increasingly fashionable around the world. As a rapidly emerging power of development, China is striving for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Currently, China has 14 trade agreements, 12 of which have been implemented, and are distributed in Asia, Europe, Latin America and Oceania. Among them, the Korea-China FTA is the broadest in the comprehensive field, with the largest trade volume.

China and Korea are the two major countries in East Asia, where economic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increased, economic trade relations have become very close, bilateral trade volume has increased significantly, investment has increased gradually, and industrial cooperation has facilitated

bilateral economic development. If the Korea-China free trade zone is created smoothly, it will inevitably increase the influence of Korea-China in the global economy by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the two economies and increasing the welfare level of both peoples. After the Korea-China FTA agreement took effect in December 2015, the first round of negotiations was held in March 2018 to follow up on th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China. Since follow-up negotiations on Korea-China service trade will benefit Korea-China service industry and investment development, the text will study how future Korea-China import and export companies will utilize the Korea-China FTA service trade agreement and investment regulations.

The research process in this paper was as follows.

Chapter 1 of the text is an introduction and mainly explained the background of the research, the problems, purpose, and composition of the research in the Korea-China FTA agreement.

Chapter 2 first introduced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the development of the Korea-China FTA, and then described subsequent negotiations on the service trade agreement. In addition, the current status of Korea-China trade was introduced as goods trade and service trade, and the Korea-China foreign trade status was presented. Lastly, we found and reviewed the research related to FTA, FTA investment regulations, and service trade.

Chapter 3 analyzed the main contents of the Korea-China FTA by dividing them into service trade agreements and investment regulations. Next, Korea-China investment regulations and current status were introduced. The last one described how the FTA works for both Korea and China.

Chapter 4 introduced the current trading environment of Korea and China, respectively, and presented obstacles to Korea-China service trade and investment. In addition, considering the trade environment between Korea and China, the government proposed responding to obstacles to Korea-China service trade and investment. Lastly, Korea-China import and export

companies have drawn two ways to respond to FTA service trade agreements and investment regulations in service trade and investment.

Chapter 5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FTA between Korea and China, and especially the need for import and export companies to use the Korea-China FTA rules to expand bilateral trade transactions and investment. And look at the prospects for greater regional cooperation, such as FTA, to develop East Asian economies as well as Korea and China in the future, and for more export and import companies to utilize them.

Keywords: service trade, Korea-China FTA, investment